

독립정신

2014
통권74 03, 04



특별기획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김정록의 회고_2

帝國을 뚫고. 19/45

아버지가 꿈꾼 길 따라

제95주년 3.1절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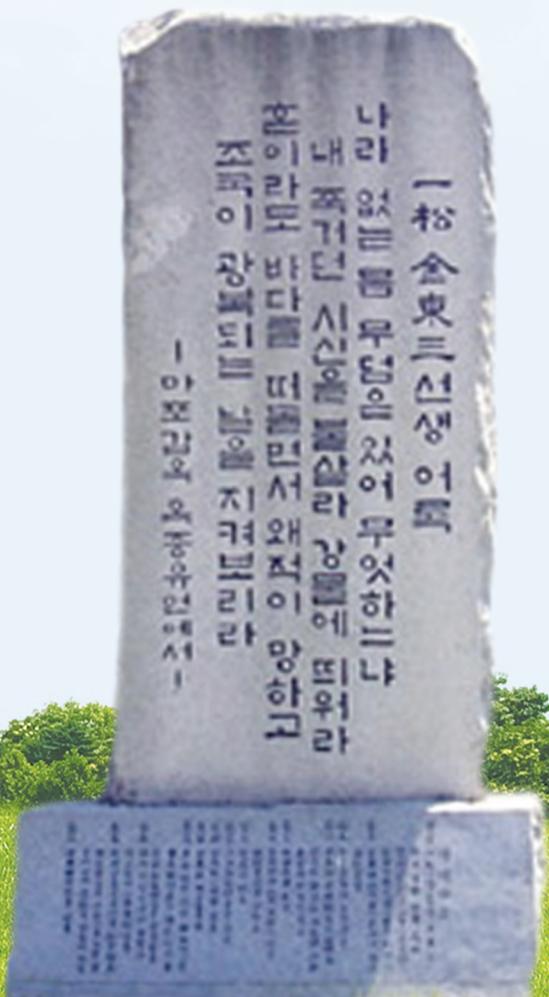
제95주년 3.1독립선언일 기념 강연

3.1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결성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

김동삼(金東三 : 1878 ~ 1937)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던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왜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김동삼(金東三) : 협동학교 설립, 서로군정서 참모장 · 통의부 총장 · 국민대표회의 의장

(위치 : 독립기념관 경내)

73

「독립정신」 73호(1, 2월) 표지 인물

석오 이동녕(李東寧)

(1869.2.17~1940. 3. 13)



대한제국기에 독립협회 활동, 서전의숙 · 상동학교 설립, 신민회 조직 등 민권 · 자강운동 및 국권회복 운동에 앞장섰고, 일제 병합 이후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으로 선임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을 주선하였다. 국무총리, 군무총장, 법무총장, 국무령, 주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우익 민족운동계열인 한국 국민당의 대표로 독립운동의 통합에 힘썼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74

「독립정신」 74호(3, 4월) 표지 인물

도산 안창호(安昌浩)

(1878.11.9~1938.3.10)



17세 구세학당에 입학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독립협회 활동, 점진학교 · 대성학교 · 대한인공립협회 설립 및 신민회 조직 등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다. 3.1운동 직후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내각 통일을 추진하였으나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자 대독립당 결성과 이상촌건설운동에 매진하였다.

1924년 미국에서 국민회와 흥사단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1928년 상해에서 이동녕 · 이시영 · 김구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대공주의(大公主義)를 제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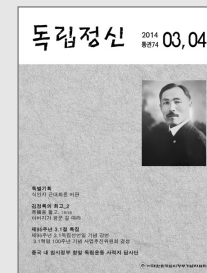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정신

201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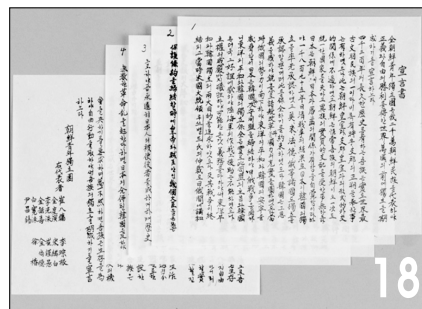
통권 74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표지사진 | 도산 안창호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18



27



61

- 04 권두언
'거지 사관' 과 '철부지 우파' 에 대하여
| 이 두 엽
- 07 특별기획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 허 수 열
- 15 김정록의 회고_2
帝國을 뚫고, 19/45
2. 아버지가 꿈꾼 길 따라
| 김 정 록
- 28 제95주년 3.1절 특집
- 제95주년 3.1독립선언일 기념강연
- 3.1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발기인 명단
- 44 기고
외국인들이 본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 김 영 관
- 50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9
충남 공주지역의 독립운동
| 정 을 경
- 58 백년편지
심산 김창숙 선생께
| 최 재 성
- 63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수원의 논개 33인의 꽃 '김향화'
| 이 윤 옥

- 65 사진으로 보는 중국답사_
| 편집부
- 73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_1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 문 찬 웅
- 78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_2
대한민국의 모든 독립 운동가들의 뜻을 생각하며
| 박 석 우
- 82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_3
대한민국임시정부, 그 곳에서 독립의 숨결을 느끼다
| 이 종 관
- 86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_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취를 따라서
| 이 재 혁
- 90 영화읽기_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속의 세계
| 이 두 희
- 94 임정서가_
유 신
종교와 식민지 근대
잊혀진 근대 다시 읽는 해방 전사
고투 사십년
| 편집부
- 104 독립정신 이모저모



81



91



104

‘거지 사관’ 과 ‘철부지 우파’ 에 대하여



이 두 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사) 호남문화관광연구원장

부처는 ‘중도(中道)’를 말씀하셨다.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진실로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라는 말씀으로 새긴다.

중도(中道)의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정신병자들이 날뛰고 있다. 최소한의 ‘가치 기준’을 잃어버린 채, 백주대낮에 헛소리를 하고 알몸으로 날뛰는 자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다.

교과사 교과서 논쟁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집단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어대고 있구나! 하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다.

그들을 언론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라고 부른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도로가 닳이고, 철도가 놓이고 근대적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論)’은, 한 마디로, ‘거지 사관’이다.

거지들이 자기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은전을 베풀어준 자에게 수없이 고개 숙여 절하고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것과, 일제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이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닳았다고 강변하는 것이, 본질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른 게 있다면, 거지들과는 달리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극히 일부의 서울대 교수들이 주도하는 경제연구소의 자료더미들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지식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 경제사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그 연구소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난국이 초래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 자들, 잘못된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반(反) 공동체적 율법학자들을 예수는 ‘독사의 무리들’이라고 미워했다.

그들은 부실한 통계와 일부 근대적 요소들의 편집으로 침소봉대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용기 있는 학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담한 주장’이라는 억지를 부려왔다.

하지만 조선사회는 개항 전후로 서서히 근대사회로 변해가고 있었고, 일제 강점기 역시 시기적으로는 전(前)근대에서 근대로 변해가는 과도기였다. 조선은 일본이 지배함으로써 한반도의 근대화는 왜곡되었고, 발전은 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다.

충남대 허수열 교수는 “1911년 777달러였던 조선의 1인당 국내 총 생산(GDP)은 1937년 1,482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45년에는 616달러에 불과했다”고 핵심적인 통계를 제시한다.

일제 강점기 평균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른 점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경제 성장의 증거로 들지만,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생산수단의 소유와 소득분배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했다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는 확인해야한다.

극소수에 불과한 일본인들이 52%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1944년 통계로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선인은 0.15%에 불과했다. 한반도는 한마디로 ‘수탈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식민지를 거친 나라의 지식인이 식민지 시대를 ‘기술적으로’ 찬양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 땅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연구소가 일본의 어느 대기업의 지원 자금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알 만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이 ‘우파’인가? 그들을 ‘뉴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우파는 자기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공동체의 내적 토대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다.

일제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한반도가 먹고 살만해졌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소위 ‘우파’ 들이다. 세상에 자기 민족을 스스로 비하하는 우파가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말고 지구상 어디에 또 있는가? 자기 민족을 폄훼하고 식민지 시대를 긍정하는 자들이 ‘보수’ 인가? 세상에 그 따위 ‘보수’ 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중도(中道)가 사라진 세상에서 ‘좌’ 다, ‘우’ 다, ‘진보’ 다, ‘보수’ 다 끊임없이 패를 가르고 물어뜯는 이 나라의 현실이 서글프지만, 매국노들의 후손인 반(反) 민족주의자들이 이마에 ‘NEW’ 자를 붙이고 ‘뉴라이트 운동’ 깃발을 들고 활개 치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가관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드골은 나치 부역자 수 만 명을 총살했다. 프랑스의 존엄을 위해서, 프랑스의 이름으로 총살한 것이다. 이게 우파다.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파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설치는 그들은 한 마디로 시대적 ‘정신병자’ 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식민지 근대화론’ 을 우리는 ‘거지사관’ 으로 규정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거치면서, 이 땅의 국토 산하를 지켜보고 계시는 선열들 앞에 부끄러웠다. 참으로 죄송하다.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허수열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식민지근대화론의 출현

해방 직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조선은 너무 가난하였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왜 조선이 이렇게 못 사는가? 그 당시의 조선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수탈론’이라는 이론은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나 1960년대 중엽 이후 약 20여년간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있었고, 이 고도성장 이후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그 이전과 완전히 판판이 되었다. 20세기를 통틀어 이 지구상에서 한국만큼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한 나라는 손꼽을 정도였다. 당연히 성공적인 개발의 사례로서, 한국경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때부터 한국경제는 많은 외국인 학자들도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경제성장의 한 원인으로 식민지시대에 이루어졌던 여러 변화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서는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출현하였다. 이른바 ‘수탈과 개발(exploitation and development)’이라는 이론의 출현이다. 수탈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탈론과 다르지 않지만, 새로 개발의 측면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수탈론과 생각을 달리 한다.

한편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역사 특히 경제사 연구자들 중 일부가 식민지 지배체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장을 내어 놓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조선의 국내총생산(GDP)을 추계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며, 그런 결과 키도 커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제시대 도입된 각종 법률과 행정제도 등도 한국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주장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부른다.

아무튼 이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수탈’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고, 그 점에서 종래의 ‘개발과 수탈’론과 다르다. 즉 개발의 측면만 인정하고 있고, 수탈의 측면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들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일제의 조선지배가 원천적으로 부당했다는 주장을 사족처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왜 원천적으로 부당한 것인가는 관심분야 밖의 일이었다. 만약 이런 면피용 수식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주장은 일제시대 일본인 관학자들이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펼친 ‘식민사관’과 하등 다를 바 없어지게 된다. 요컨대 ‘식민지근대화론’에 이르러 우리는 다시 ‘식민사관’의 부활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2.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식민지근대화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실증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엄밀하게 통계를 검토하고, 그 통계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경제적 변화를 분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록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제시대에 조선이 개발되고 조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어김 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국민들의 반일 정서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지만, 학자적인 양심에 따른 소신 있는 주장이라는 평가도 듣게 된다.

필자는 오랫동안 식민지근대화론의 대척점에 서서 그들을 비판해 왔다. 그들이 통계적 자

료와 같은 실증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방법 역시 실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따분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지만, 각종 통계를 구사하여 그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려 노력해 왔다. 『개발 없는 개발』과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이라는 필자의 두 책은 그러한 논쟁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필자는 『개발 없는 개발』에서 조선의 개발과 조선인의 개발을 구별하여 다루었다. 그 당시 조선에는 일본 대기업을 비롯한 일본인 기업이 다수 진출하여 조선의 공업을 휘어 잡고 있었다. 기술적으로 훨씬 앞선 일본인 자본이 다수 진출하였는데 조선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은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의 주체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에게 흡수되었다. 일본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조선의 토지를 차지해 나갔고, 광공업은 사실상 일본인 기업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조선이 급속히 개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전혀 판판이었다. 민족별로 생산수단이 불평등하게 소유됨으로써, 자연히 민족별로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다시 생산수단 소유에 있어서 민족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과정, 바로 그것이 식민지체제하의 조선경제의 본질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이러한 조선경제의 본질적 측면은 들여다 보지 않고, 그저 조선에서 일어나는 표면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식민지시대의 조선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그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방법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실증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 실증에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는 1918년까지의 조선총독부의 통계가 매우 부정확한데, 이 부정확한 통계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GDP 추계에 사용함으로써, 1910~1918년이 식민지체제하에서 가장 황금기로 되어 버리는 우스운 추계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제국이 조선을 병탄한 초기에는 조선에 어떤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추었고, 개발은 이런 조사가 끝난 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조사에 치중하던 시기의 개발속도가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의 개발속도보다 빠르다는 주장을 어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실증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1941~1945년간의 기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조선의 GDP를 추계할 때 그 추계기간은 1911~1940년으로 한정되었고 1941~1945년은



제외되었다. 전시체제하에 있던 후자의 기간을 추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계를 토대로 식민지 조선경제 전체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에 있다. 즉 그들이 추계한 GDP는 식민지 조선경제의 성립과 발전 기간에 한정되어 있었고, 몰락기간은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추계결과를 가지고 식민지기 전 기간에 걸친 성과인양 평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 1941~1945년의 조선경제의 몰락은 수량적으로 명백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비록 수량적으로 명백히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붕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10~1918년간의 GDP 추계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식민지근대화론의 아킬레스건 - 1910~1918년의 조선의 농업생산

이런 이유로 식민지근대화론과 필자 사이의 논쟁은 1910~1918년간의 조선의 농업생산이 실제로 급증했는지 혹은 사실상 정체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논쟁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만약 필자의 주장대로 이 시기의 농업생산이 정체했다면, 이 기간의 GDP 성장 혹은 일인당 GDP의 성장도 거의 정체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1941~1945년간의 조선경제의 붕괴와 1920년대의 정체를 동시에 고려하면 식민지기의 개발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며, 식민지근대화론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맥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 바로 그 점에서 1910~1918년간의 조선의 농업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하는 문제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래, 식민지근대화론 측에서 주로 1910~1918년간의 조선의 농업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비판하기 위해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것이다. 이 책은 1910~1918년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조선의 농업의 변화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야 속에서 그 시기의 변화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또 김제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지역의 농업을 사례로 삼아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이 얼마나 사

실과 다른 것인지도 밝혀 두었다.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호평이 있었지만, 유독 식민지근대화론에서만 신랄한 비판을 가해 왔다. 필자의 저술 목적이 식민지근대화론의 아킬레스건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일제초기 전라북도의 농업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필자는 조정래 소설가에 대한 이영훈교수의 비판에서 나타났던 식민지근대화론의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 파악을 그의 글 전체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지역은 조선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일본인들이 진출하여 조선의 토지를 장악해 갔던 곳이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소유했던 때에는 전라북도의 경지 중에서 약 4할 정도가 일본인 소유였다. 또 전라북도는 조선에서 가장 일찍부터 수리조합이 설치되었던 곳이고, 조선에서 하천개수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1차적으로 만경강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 지역은 조선에서 가장 선진적인 농업지대였고, 농업개발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는 이 지역의 농업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필자는 식민지근대화론이 1911~1918년의 농업생산 혹은 GDP가 급속하게 증가하도록 추계한 그 결과가 잘못되었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 지역에 관한 논쟁에서도 필자의 주장은 한결 같았다. 즉 이 지역의 농업개발은 191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것만 밝히면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 전체가 큰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뉴라이트 계간지인 『시대정신』 2007년 여름호와 겨울호에서 이영훈교수는 조정래소설가를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즉 「우리 시대의 진보적 지식인 - ④ 조정래論광기 서린 증오의 역사소설가 조정래 - 대하소설 『아리랑』을 중심으로-」, 『시대정신』 2007년 여름호와 「김제 역사의 본류에 진입 못하고 이방인으로 맴돈 조정래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구별조차 못하는 MBC - 조정래와 MBC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시대정신』 2007년 가을호가 그것이다(이 두 글은 『계간 시대정신』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읽어볼 수 있다).

제목부터 매우 도발적인 그의 글을 보면, 전라북도의 농업은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지주들에 의해 1917년까지 크게 개발된 상태로 서술되어 있다. 심지어는 종래 누구나 저수지로 생각해 왔던 벽골제의 둑마저 방조제였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벽골제가 방조제라면 그 둑 아래까지 바닷물이 몰려 왔을 터이니, 김제만경평야는 불모의 땅이



되어 버린다.그런 불모의 땅을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진출해 온 일본인지주가 풍요로운 땅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그의 생각이 이러하였기 때문에,원래 풍요로운 땅을 일본인들이 빼앗아가는 것으로 묘사한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못마땅했을 것이고,그런 엉터리 역사소설이 한국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그리하여 그는 칼을 빼들고 조정래 소설가를 난도질하였는데,그것이 바로 앞의 두 논문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조정래 소설가의 사실인식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필자는『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제2장과 제3장에서 조정래 소설가의 서술이 아니라 역사학자인 이영훈교수에게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즉 이영훈교수의 조정래 소설가에 대한 비판은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던 것이다.

이영훈교수가 이러한 필자의 비판을 참고 넘어갈 리야 없지 않은가? 그는 2012년 『경제사학』 제52호 「혼란과 환상의 역사적 시공 - 허수열의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에 답한다」에서 필자의 책에 대한 서평의 형식으로 필자를 맹렬하게 비판하였다.필자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이영훈교수가 필자에 대해 제기한 비판이란 것 역시 도무지 사리에도 맞지 않고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러한 것들뿐이었다.그는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의 상상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였다.그 점을 밝힌 것이 「상상과 사실 - 이영훈교수의 비평에 답한다」(『경제사학』 54호)이라는 논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비판 논문이 수록된 『경제사학』 제54호에 이영훈교수가 쓴 「허수열교수의 비판에 다시 대답한다」라는 논문이 같이 수록되었다.필자가 원고를 제출한 이후,그것을 보고 덧붙인 반론이 같은 호의 『경제사학』에 수록된 것이다.

필자는 이 마지막 반론마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하는 논문을 완성해 놓고, 2014년 6월에 출간될 『경제사학』에 투고할 예정이다.아쉬운 점은 이 공간은 양자간의 논쟁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간의 논쟁의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친 점이다.관심이 있으신 독자들은 필자가 제시한 글들을 갖다 놓고,하나씩 하나씩 정독해보면,그의 주장이 전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 차릴 수 있을 것이다.객관과 실증을 중시한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이 주관과 상상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 글을 맺으면서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일본이 바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빠른 시일 내에 선린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필자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나친 우경화가 한일간의 외교적 단절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국수주의적 경향을 경계하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내셔널리즘은 아직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다.국가간의 마찰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그러하거늘,일제 식민지시대는 한층 더 하다.일제시대는 일본제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조선인을 차별하던 시기였다.이런 시기에 대해 연구하면서 민족 문제를 논외로 한다는 것은 바퀴 없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일제시대 조선에 대해 분석하려면 민족문제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식민지근대화론은 그런 전제가 없다.그들은 그저 조선이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벌어진 현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그 곳에서 전개되는 차별과 불평등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바로 그런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에,조선의 발전이 바로 조선인의 발전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낳게 되고,급기야는 오늘날처럼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때,결과적으로 일본 우익들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버려,그들의 발호를 오히려 도와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있다.그들의 주장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되기도 한다.

한층 더 중요한 점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이 아무런 실증적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실증에 충실하다고 외치고 있지만,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이영훈교수와 필자 사이의 논쟁을 하나 하나 추적하면서 읽어 보라.그들이 과연 어떤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들은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입증된 사실인양 착각함으로써,자신들도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도 오도하고 있다.한국인들은 일제시대에는 차별과 박해만 받았고,개발의 이득을 제대로 향수하지 못하였다.한국의 본격적인 개발은 1960년대 중엽 이후에 시작된 것이고,정치적 독립이 없었다면 그러한 개발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그들의 논리체계에서는 왜 한국인들에게 독립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고,왜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독립지사들을 존경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혹시 독립과 한국경제의 발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1945년 해방과 대

한민국의 경제발전』(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논문』43호, 2013; 독립기념관사이트에서 원문보기 가능)이라는 필자의 논문을 일독해 보실 것을 권한다.

※허수열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현재 충남대학교 교수 및 충남대학교 도서관장으로 재직중이다.일본 교토대학 경제학부 초빙외국인학자,미국 하버드대학 객원교수, 경제사학회장 등을 역임하였다.『개발 없는 개발』(2005, 은행나무)을 비롯한 여러 논저로 제2회 임종국상,제57회 대한민국학술원상,한국기업경영학회 우수학술상,제1회 충남대학교 교수회상,충남대학교 우수교원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帝國을 뚫고. 19/45

2. 아버지가 꿈꾼 길 따라



김 정 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子

경북 고령 저전동. 깊게 늘어진 골짜기 안에서 농토를 일구고 사는 집안의 6남 1녀 중 5남으로 태어난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공부 욕심이 많고, 글재주도 괜찮아 보여 집안 어른께서는 아들 하나만이라도 기를 살려 보자며 서당으로 보냈다.

서당 훈장 이두훈은 한 눈에 아버지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남다른 관심으로 눈여겨보며 한학을 가르치다가 답답한 좁은 골짜기를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속셈을 알아차리자 포부를 키우려면 신문학 쪽이 맞다고 보고 집안 어른께 권하여 고령 보통학교로 전학하게 했다.

보통학교 학업은 진작부터 틈틈이 익힌 터라 1년 만에 마친 아버지는 오직 한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서울 유학만은 집안 형편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은지라 고민하다가 그래도 향학의 일념을 버리지 못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목공부에서 일하며 학비조달이 가능한 경신 중학교를 찾아내어 바로 입학하였다.



▲ 김상덕 선생

경신 중학 목공부에서 일하며 공부하던 아버지는 사정이 비슷한 나기호 동문과 알게 되어 서로 격려하면서 지기지우의 교분을 쌓았고, 훗날 상해임시정부에서 만나 평생 동지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 청년 학도들의 학구열은 대단했었다.

약소국가의 비애를 이겨내는 것은 오직 개명(開明)하는 길 뿐이라는 풍조가 널리 퍼져있었고, 이상을 추구하는 열혈청년들은 뜻을 같이 하는 지기(知己)를 찾느라 치열한 토론으로 밤을 새우고 그리고 대개 그 끝은 처량한 조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설움에 맺혀 옷소매를 적시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리라는 대망을 품고 신세계로 떠나갔다.

경신중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독립운동의 거인 김규식 선배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버지는 국권회복의 힘은 선진문물의 배움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었고 1917년 3월 졸업과 동시에 일본 유학길을 떠나 동경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에 입학하였다.

유학을 떠나기에 앞서 집안 어른께서는 혼기가 짝 찬 아버지를 이웃 합천에 사는 규수 진양 강씨와 연을 맺어주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다행히 미션스쿨인 모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독교계의 지원으로 유학길이 열렸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요즘으로 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하느라 몹시도 고달픈 유학시절을 보냈다.

국민의 대부분이 불취학(不就學)으로 민도가 낮았던 당시 일본의 수탈과 억압에 고분고분 살아가는 어진 백성을 일깨우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으려 하는 것은 지식층과 청년 학도의 몫이었던 시대이다 보니 유학생들은 세계사조의 흐름에 매우 민감해 있었다.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동경 유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만남의 전당 YMCA에 틈틈이 들러서 유학생들과 활발한 교류를 나누고, 교우의 폭을 넓혀 나갔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 말, 민족자결론이 세계 사상계를 풍미하던 무렵,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원칙이 동경의 영자신문 <재팬 애드버타이저>에 실린 기사를 본 유학생들은 세계사조의 흐름이 약소국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몹시도

고무하여 들떴다.

유학생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학우회에서는 편집장 최팔용의 주도로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을 통해 이 사실을 교우들에게 알리고, 민족자결과 자주독립을 주제로 하는 웅변대회를 열어 분위기를 달구어 나갔다.

1919년 1월 6일, YMCA 강당에서 웅변대회가 열리던 날, 연사로 단상에 오른 아버지와 이종근, 윤창석은 민족자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만만이 닥치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달성해 나가자고 번갈아 외치면서 장대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이어서 등단한 김도연은 장내의 소란을 가라앉힌 다음 중구난방으로 떠들게 아니라 대표를 선출해서 우리의 열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의하여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자리에서 대표 10명을 뽑아 거사를 일임하였다.

3.1운동을 촉발한 2.8독립선언은 장차 일본열도를 발각 뒤집어놓는 태풍의 눈을 키우면서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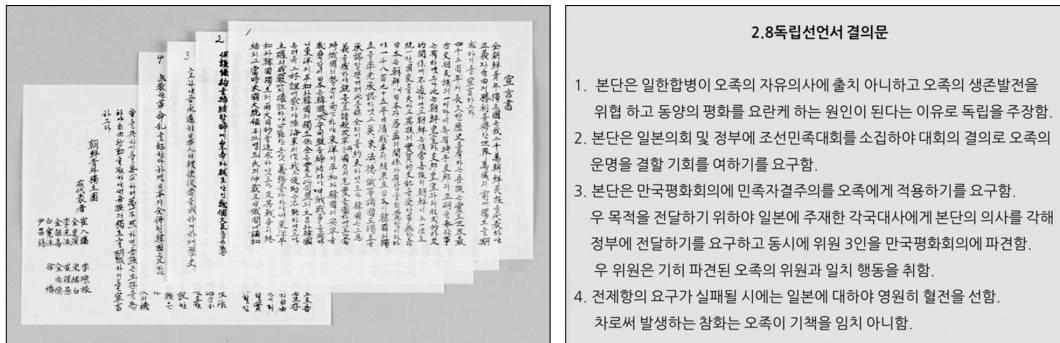
2.8독립 주역들은 경시청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치밀하게 일을 추진하였고, 경시청의 꼬나 풀이 설치대는 촘촘한 탐지망에도 용케 걸려들지 않고 차근차근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의 인쇄를 완성하였다.

거사 당일, 1919년 2월 8일 오전, 독립선언 주역들은 각각 역할 분담하고 일본 중의원, 참의원 전원과 정계, 법조계, 문인, 언론계 및 각 국의 외교공관, 일본의 지도층을 총망라한 인사들에게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근우, 이광수를 국내와 상해로 밀파하여 최근우는 국내의 지도층에 경과를 알리게 하는 한편, 이광수는 상해로 보내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열고 있는 윌슨, 클레망소, 로이드 조지 등 3거두에게 우리의 결의를 전승으로 알리게 하고, 영국 및 미국계 언론에도 문서를 보내 온 세계가 알도록 했다.

2월이 다가오자 동경 YMCA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유학생들의 동태를 수상하게 여긴 경시청에서 정·사복 경찰을 외곽에 투입하여 학우회 총회를 명분으로 하는 이 수상한 행사를 예의 경계하고 있었다.

드디어 대한독립을 만방에 선포하던 날, 개회가 선언되자 바깥의 낚새를 유학생들도 알아차리고 먼저 최팔용이 재빨리 긴급동의를 청하고 단상에 올라 '조선청년독립단' 발족을 후다닥 선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백관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바톤을 이어받은 김도연은 결의문을 짚싸게 발표하였다.

이 모든 진행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광석화와도 같이 해치운 것이며, 중요한 불일은 거



▲ 2.8 독립선언서

- 2.8독립선언서 결의문**
1. 본단은 일한합병이 오족의 자유의사에 출치 아니하고 오족의 생존발전을 위협 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오족의 운명을 결할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함.
 3. 본단은 만국평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우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각국대사에게 본단의 의사를 각해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함.
우 위원은 기하 파견된 오족의 위원과 일치 행동을 취함.
 4. 전제왕의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포함.
차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오족이 기책을 임치 아니함.

의 다 보고 장내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를 때쯤에야 상황을 알아차린 경찰이 다급하게 장내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흥분한 학생들과 치고받는 난투가 벌어져 사태는 난장판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이 날, 학우회의 동정을 감지하고 현장을 덮친 경찰의 지휘자는 우리의 동포, 고등계 형사 선우갑(鮮于甲)이었고, 잡혀간 주역은 아버지 김상덕, 최팔용, 김도연, 백관수, 이종근, 김철수, 서춘, 윤창석, 송계백이었다.

주역 9명은 모두 경시청에 압송 수감되었고, 선우갑은 조국을 짓밟은 공으로 승승장구의 길로 일로매진하게 되었다.

오늘날, 친일파들이 애써 지워버린 친일파 행태를 선우갑이 그 표본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것이 바로 친일파의 모습이다.

다행히 임무를 띠고 국내와 상해로 떠난 최근우와 이광수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아세아를 총칼로 손아귀에 집어넣고 대동아경영을 평평거리던 대일본제국의 심장부 동경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진 이 경천동지할 사건으로 제국 대본영은 기절초풍했고, 분기탱천한 사법당국은 주역들을 내란음모 중죄로 처단하려고 했다.

그러나 잔악무도한 일제에도 의기는 살아있었다.

일본 변호사 협회장이며 법조계의 명망가인 화정탁장(花井卓藏) 회장이 변론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화정회장은 법정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기를 중죄로 꺾겠다 면, 지금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위해 외지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분별없는 처벌을 보고 무슨 명분으로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쳐 싸울 수 있겠냐며 장내를 일갈한 것이다.

이목이 집중되어 지켜보고 있는 국내여론은 이 변론을 받아들였고, 비판에 몰린 검사국은 어쩔 수 없이 공색하기만한 출판법 위반죄를 물어 단기형으로 처벌 할 수밖에 없었다.

최고의 형벌로 혼내주려 하다가 최악의 판결로 재판이 끝나자 분통이 터진 사법당국과 법조계에서는 화정회장의 변호사 회장 자리와 함께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하여 생계수단을 틀어막아 분풀이를 했고, 유족들은 대를 이어 가난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다.

몇 년 전, 동경 YMCA에서 2.8독립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황당한 시상을 지켜본 적이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훈장을 일제 시, 일본의 유력인사에게 추서하는 훈장수여식이 벌어진 것이다.

보훈처가 연출한 각본 내용은 곧 밝혀졌다.

근 백년의 세월이 흐른 이 날 화정회장에게 고마운 뜻을 훈장에 담아 유족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었다.

3대에 이은 유족들의 초라한 행색은 한 눈에도 딱한 사정이 드러나 보는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는 유족 자리로 찾아가 눈물을 삼키며 깊숙이 머리 숙여 미안해했고, 고마워했다.

1920년 2월 초, 1년 만에 출옥한 아버지는 곧바로 상해로 망명길에 올라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꿈꾼 길은 잃어버린 서러운 조국을 되찾겠다는 독립운동 길이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여정을 가족과 함께 마지막에 멈춘 곳이 중원의 깊숙한 곳 중경이었다.

중경. 단절의 땅 중경. 옛 위, 촉, 오 삼국쟁패 시대에 조조에게 쫓긴 제갈공명이 잔도를 불태워서 장병들의 귀소본능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모질게 단아버린 곳.

권토중래를 뺄 속에 새기고, 양병(養兵)하며 훗날을 기약했던 험준한 촉나라 땅 중경.

거기는 항일투쟁에 한 몸을 던진 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딸자식을 굶어 죽게한 가장 슬프고도 불행했던 비정한 땅이었다.

우리 집 가족사가 왜 이곳에 들어와 멈췄는지 발자취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독립운동이 점철되어 있고, 독립운동은 재미도 없는 이야기며, 자량 삼으려한 것도 아닌 만큼, 간략하게 추려서 쓰고자 한다.

1920년 초반의 임시정부는 세력이 매우 허약했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아버지는 거대한 일제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도 나약한 힘을 절감하고, 일제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만주 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항일의 거인 김응섭, 김동삼, 김원식과 만나 서로 투합하면서 한족노동당을 창설하고 투쟁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만주의 수많은 독립운동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직은 정의부였다.

이 정의부가 내분에 휩싸여 지도부가 애써 수습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기회에 당의 체질과 조직을 과감하게 재편성하기로 결정하고 이참에 만주에 분산되어 있는 단체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는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에 당은 부제(部制)를 집행위원제로 바꾸고 아버지를 집행위원에 영입하면서 아버지는 정의부에 참여하게 되어 평소에 염원하던 유일책진에 몰두하기 시작했었다.

만주를 하나로 규합하는 과제는 정의부가 지향하는 목표였던 만큼 정의부는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만주 모든 단체가 동참하는 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통합임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각 단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만든 추진체가 시사연구회였다.

만주 대통합의 책무를 위임받은 시사연구회에서는 집행위원장에 아버지를 선출하였고, 아버지는 숙원인 거대 항일전선을 완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소임에 전력투구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선 만주는 격동기였다.

1931년 9월 18일 일제의 만주 침공으로 항일전선은 위기를 맞았고,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의 천장절 행사를 대한의 협객 윤봉길의사가 폭탄으로 날려버리자 일본이 받은 충격과 분노는 컸다.

뒤이어 1932년 11월 말에서 1933년 초 사이에 한중연합토일군(韓中聯合討日軍)이 결성되어 경박호승첩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타격을 입은 일군은 독을 품고 정예부대를 대거 투입하여 무자비한 독립군 토벌전을 벌이자 만주의 항일세력은 위축되어 중국본토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이 중국 수도 남경으로 철수한 1935년 무렵의 세계정세는 중일전쟁, 미일전쟁, 러일전쟁이 거의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것이 확실시 되던 때였다.

이는 곧 일제의 패망으로 본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항일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념을 뛰어넘는 좌우합작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남경에 있는 5개 야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1935년 7월 5일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통합하고 집행부에는 아버지를 포함한 김규식, 김원봉, 조소앙, 윤기섭, 이청천, 최동오, 성주식 등 당대의 걸출한 지도자를 집행위원에 선출하여 당 운영을 대폭 강화해 나갔다.

이후 1937년 일제의 대륙침공으로 임시수도 중경을 향해 떠나면 장정길에 오른 것이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발자취이다.



▲ 2.8독립운동 주역들

만주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관동군과 맞서 불퇴전의 혈투를 벌인 전장이었다.

각 처에서 침략군을 격파하여 적에게 타격을 입힌 피의 혈전장이다.

이러한 독립운동에 커다란 획을 그은 항일성지를 어느 역사가학자가 책을 쓰면서 심히 폄훼하는 글을 읽고 놀란 적이 있다.

1924년 무렵, 임시정부에서 세력 확충을 위해 만주의 독립운동선과 결합하기로 하고, 정의부를 교섭 대상으로 정한 후, 특사를 만주로 보내 협의 끝에 서로 통합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시정부에 입부(入府)하기로 한 정의부가 합의를 뒤엎고 배신했다는 줄거리이다.

어처구니없는 곡필이다. 어쩌면 모르고 베낀 필화일지도 모르겠다.

당시 임시정부와 정의부 간에 결합을 주도한 것은 임정 의정원 의장 최창식과 이유필이었다. 임시정부 전권 특사로 만주에 건너온 이유필은 정의부의 지도부를 먼저 순방하면서 개별 접촉을 통해 사전 조율 후 정부조직을 국무령제로 개정하고, 국무령에는 이상룡 정의부 측 각원으로는 김동삼, 오동진, 현정경, 김응섭 등이 입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이상룡은 조카 이광민을 대동하고 먼저 상해로 떠나고 뒤이어 국무원 모두가 약속대로 임시정부에 입부하기 위해 상해로 떠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의부를 영도하는 핵심인사가 떠나고 나자 이때를 노린 김이대, 고활신, 현익철, 강제하, 김학선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의부의 기능 모두를 장악한 것이다.

우리나라 영토보다도 더 넓은 정의부 관할의 모든 하부 조직들은 이들의 불의에 항거하여 불복 탈퇴하는 등 정의부는 와해 위기에 놓이는 돌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상해에 거의 도착한 국무원들은 급보에 접하자 황급히 정의부에 복귀하였고, 혼란을 수습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려 임시정부와의 제휴는 무산되고 만 것이 일련의 실정이었다.

임시정부의 당면사안은 인물이 없어 모자란 몇 명의 국무원을 충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의부와 강력한 힘의 합치였기에 파열하는 조직을 먼저 수습하고 나선 것은 임시정부도 동의한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된 것을 어디서 베껴 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엄중한 진실이 요구되는 독립운동을 그렇게 소설로 황칠을 해놓았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 퍼져있는 수많은 항일단체를 하나로 묶는 유일책진을 위해 모든 조직 대표가 신안둔과 집창자(集廠子)에 집결하여 역사적인 만주 대통합을 기도한 당시 만주에 커다란 동향을 불러일으킨 시사연구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저 스치고 지나쳐 버리고 있다. 아니,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처럼 만주 독립운동사는 주마간산하면서 지나갔다.

얼마 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저명한 역사학자와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독립운동성지 만주를 독립운동사에서 배척한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학자는 만주에 관한 자료가 너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세월이 지나 만주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속속 발굴되었는데도 만주 역사는 그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사학계의 편견과 의식화된 학자들, 그리고 석연찮은 사정들이 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신안둔 회의는 시사연구회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아버지가 기관지를 발간하여 분열된 단체 간에 소통을 트게 하고 만주에 산재해 있는 각양각색의 항일단체를 찾아 의견을 조정하고 호소와 설득으로 조율한 연후에 소집한 회의로서 대통합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공산계의 견제를 명분으로 한 모함과 파괴공작으로 실패한 매우 애석하고 불행했던 회의였으며, 당시 만주의 거물 김동삼, 김좌진, 김승학, 이청천, 황학수 등 만주 3대 단체 대표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동참하였고 상해의 진객 도산 안창호도 건너와 성사를 지원함으로써 만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다.

시사연구회는 아버지가 집행위원장으로 주도한 것이니 쓰기도 민망하고, 겸양의 미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 않아 망설였으나 용기를 내어 쓰기로 했다.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공적을 요약하면, 1920년 11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혁명단

체 대표자 대회에 한국청년대표로 참석하여 약소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1927년 4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3대 단체가 통합 개편할 때 김동삼, 김좌진, 이청천 등과 창당 활동을 하며 최고 간부에 있었고 1932년 12월 10일 당으로부터 중임을 받고 신숙과 함께 남경 장개석 정부를 설득하여 한중연합토일군 창설 및 무기, 탄약 등 군수물자 지원에 절박한 심정으로 교섭을 벌였다. 또한 1935년 7월 5개 야당이 통합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하는데 주역 중 1인으로 중앙위원에 선임되었고, 이후, 당에서 불관주의를 버리고 임시정부에 참여하자 1942년 10월 임정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어 이정호, 김원봉과 외교대표 파견안을 제안하고, 미영소등의 국제적 승인을 위한 외교노력을 기울였고, 임시의정원 학무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유학시절의 김상덕 선생(왼쪽)

1941년 11월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광복군의 활동을 통제하는 '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을 임시정부에 일방통고하며 사실상 중국에 예속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자 임시정부에서는 '특종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버지 김상덕, 손두환, 안훈, 유자명, 공진원 등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고, 중국 측에 9개 준승 취소의 특명을 부여했으며, 위원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며 교섭을 벌였다.

'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은 대한민국의 전투부대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가함으로써 일본이 패망 시 연합군 자격으로 독립국가 수립 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임시정부로서는 반드시 취소시켜야 하는 절대명제였었다. 막중한 임무를 받은 교섭위원들은 낯선 군사위원회의 높은 벽을 인내와 끈질긴 설득 끝에 3년 만에 교섭에 성공하여 한국광복군으로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임무를 완수하였다.

1942년 11월 4일 여당인 한독당에서 임시약헌수개를 제안하여 여야 간에 의견충돌이 벌어지자 의정원은 이를 조정하는 약헌수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헌수개위원으로 아버지를 포함해서 조소앙, 조완구, 차리석, 안훈, 최석순, 신영삼, 박건웅, 유자명 등 9명을 선출하여 1942년 11월 27일 오사야향 제1호 의정원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참여한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무려 35차례의 조정회의 끝에 1944년 4월 20일 제36차 임시의회에서 조정합의안을 통과시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탄생시켰다.

1944년 9월 17일(1945년 3월과 겹침) 임시정부에 입각하고 문화부장에 재임 중 해방을 맞아 임정요인 1진으로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 선생, 엄항섭 선전부장, 유동열 장군과 함께 항일투쟁 27년 만에 고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해방정국 때, 미군정하에 과도입법위원회에 선출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필요한 근거법 제정에 기여했고,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헌법기초위원회에 선임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 참여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자 위원장에 선출되어 친일매국척결에 고심했고, 민족정기 바로세우기에 진력했으나 이승만의 지시로 중부경찰서장 지휘 아래 무장경찰에 의한 습격으로 헌법기관 반민특위가 파괴되는 무법천지가 벌어지자 더 이상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정단상에 올라 그간에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수사 방해와 월권에 의한 수배자 비호 등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울분에 찬 고별소회를 밝힌 후,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반민특위를 떠나갔다.

격무에서 벗어난 아버지는 모교인 경신중학교(당시6년제) 교장직에 전념하면서 모교재건에 힘쓰던 중 6.25사변을 만나 당시의 유일한 탈출구인 한강교를 예고 없이 폭파하는 바람에 서울에 갇혀 숨어 살다가 북측의 정치보위부에 의해 납북되어 단절의 땅 북녘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독립운동시절, 성품이 후덕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아버지는 요처마다 대표로 선발되어 장개석 정부와 교섭을 벌여서 우리 독립운동사에 주요한 역할을 마다않고 기여했으나 독립운동사에서는 유독 아버지께 대한 기록에 인색했고, 기록이 있어도 심히 폄하되어 모욕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는 청산하지 못한 해방정국과도 유관하다고 나는 보고 있다. 해방 후, 친일세력들은 이승만의 비호아래 역사현장에 멸절하게 건재했고, 친일역사학자가 역사학 태두로 추앙받아 그 제자가 뒤를 이어갔으며, 또 그 아래 제자가 이어가는 순환을 거쳐 마침내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예법과 의리를 섬기느라 역사의 대의(大義)는 버리는 역사관으로 우리의 역사는 만신창이가 되는 결과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요즘 비등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교과서 안의 망중사관은 차치하고라도 아버지께 관한 예를 꼽자면, 어느 역사라고 쓴 책을 보자니 조선 민족혁명당이 남경에서 통합 창당할 때 가장 강력한 당을 대표해서 합당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당의 최고집행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선출된 아버지는 쏙 빠져있고, 집행위원 위치에 있지도 않은 여러 인사가 등장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는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친일척결의 정점에 있었고, 친일경찰의

살생부에도 표적으로 포함되는 등 그들의 제거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엄중한 독립운동사에 이렇듯 조작을 해대는 학자의 궤를 따라 가보면 거기가 어디인지가 몹시도 궁금해진다.

이들의 파워는 아직도 건재하고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러니 이들의 비위에 맞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쓰려면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제 잔재를 털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아버지의 자화자찬이라도 늘어놓지 않으면 작게는 아버지를 방치하는 불효가 되며, 크게는 역사왜곡을 방치하는 것이라 내가 확실히 익혔다고 자부하는 아버지 부분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그간에 겪어서 얻은 교훈이다.

해방정국의 내력을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며, 비록 역사의 난맥상에 맞서는 측면이 있더라도 자식 된 도리를 넘치는 소행임을 자책하면서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뜻을 같이 하는 어른들과 동지들에게는 이 점 머리 숙여 사죄하고자 한다.

이참에 일부 학자의 비뚤어진 역사관을 개탄하면서 학자적 지성 뒤에 숨어서 소투(小偷)에서 구한 알팍한 학식으로 학자연하는 부류를 좀 나무라야겠다.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아닌가. 바르게 쓰지 않으면 비뚤어진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경박한 곡필이 본류를 어지럽게 흐려놓아 역사의 모습이 일그러진 사화상(史畵像)을 보는 것 같아 속을 많이 상하게 한다.

그래서 사이비학자를 보면 역사의 자객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있다.

가족생활상을 쓰는데 객설이 너무 길어진 것 같다. 뜻이 통하는 분은 공통 분노를 느꼈으리라 여겨서 지면을 할애했다.

상해와 만주를 오가며 동가숙서가식하던 아버지가 만주 길림성에 정착한 때가 1925년 하반기 정의부 최고 집행위원회에 선출되면서부터다. 망명생활 6년 만에 안정을 찾은 아버지는 인편을 은밀히 고향에 보내 그리던 어머니를 불렀다.

열일곱 나이에 낫선 타향에 시집와서 믿고 사는 신랑이 훌쩍 떠나고 없는 집안에 시부모님과 일곱 형제가 딸린 충충시하에서 행하니 고달픈 시집살이를 하던 어머니는 십리길 밖 교회를 찾아 부대끼는 마음을 신앙에 의지하며 살다가 아버지가 부르는 소식을 받자 십년 세월이 서러워 빛바랜 신혼 길에 올라 구방인지 신랑인지 분간이 안가는 아버지를 만나러 떠난 것이 1926년, 북풍 한설이 만주 별관을 휘몰아치는 한겨울 2월이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위세등등한 조선총독부가 쫓는 수배자를 찾아가는 길이니 고도의 경계를 해야 했고, 고등계에서 풀어놓은 친일매국 꼬나풀이 곳곳에 깔려있어 이 또한 조심

해야했던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지 대구에 도착하자 사진관부터 들러 정면사진 한 장을 찍어 깊이 챙겨 넣는다.

이 사진이 훗날 어린자식들이 자라서 어머니의 모습을 알게 한 유일한 사진이다.

만주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 무렵 한중연합토일군이 창설되어 경박호 승첩을 비롯한 동만주 승첩, 사도하자(四道河子) 대승, 무림자(武林子) 혈투, 대전자령 대승 등 수많은 전투에서 독립군은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악에 받친 일본군이 대규모 전투부대를 투입하여 독립군과 동포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도륙 작전을 감행하여 저항은 위축되어갔고, 끝내는 중국 본토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는 독립군 항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던 시기였다.

한중연합토일군은 당의 특명을 받은 신숙과 아버지가 중국 정부와 교섭을 벌려 장비와 무기, 탄약 등 군수물자를 지원 요청했던 것으로서 아버지는 끝까지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은 행보를 보였었다.

아버지의 투쟁의지는 영주(令洲)라고 지은 아호(雅號)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令’은 호령을 뜻하고, ‘洲’는 만주를 뜻한다. 만주에 진출한 일제의 침략군을 제압하고 호령하고 싶어 했던 염원이 담겨 있다.

훗날, 만주 대통합을 기도한 시사연구회의 신안둔과 집창자 회의가 실패함으로서 응집력을 잃은 항일전선이 곳곳에서 무너져 중국 본토로 퇴각해야만 했던 참담한 행로를 아버지는 두고두고 한스러워하면서 기록에 남겼다.

몇 해 전, 어느 학자가 아버지를 연구한 논문 중에 남경에서 ‘영주’라는 호를 지었다고 쓴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호(號)란 마음 속의 바람을 드러내는 다짐으로 남경은 ‘영주’라는 호와는 뜻이 부합되지도 않으니 바로 잡아주었으면 한다.

1933년 7월 24일 길림에서 첫 딸을 낳은 어머니는 미처 산후조리를 할 새도 없이 남편을 따라 남경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민혁당은 남경 호가화원(胡家花園)에 본부를 두었고, 가족들도 속속 이곳으로 모여 정착하면서 비로소 요동쳤던 만주생활에서 벗어나 안정된 가정을 갖게 되었다.

남경 호가화원에 머문 것은 정확하게 딱 3년. 이 3년의 평화가 열일곱 나이에 시집와서 파란만장한 남편의 독립운동 길을 동행한 어머니가 향유한 안식의 전부였다. 이 평화로웠던 호가화원 3년 동안 어머니는 남편을 빼어 닮은 아들 하나를 생산하고, 자신을 닮은 딸 하나를 더 얻어 삶의 흔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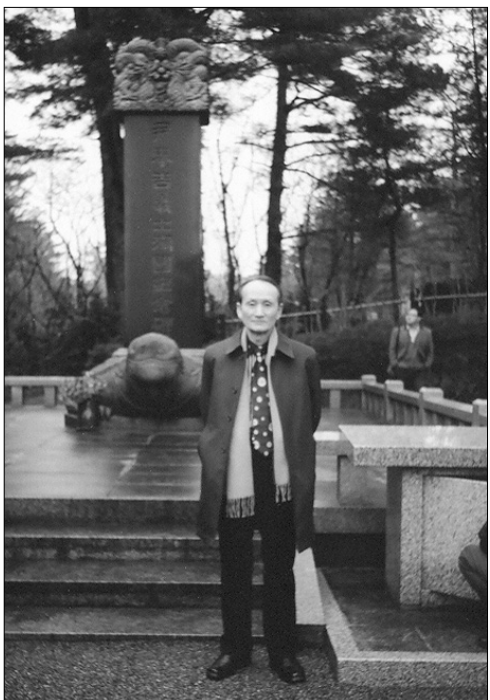


▲ 히비야공원 기념 촬영(앞 줄 왼쪽에서 5번째가 김정록)
* 히비야공원 : 2,8독립선언 주역들이 체포된 후, 1919년 2월 18일 2차 독립선언이 일어났던 곳

1937년 11월, 남경을 탈출하여 중경을 향해 떠난 멀고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끝으로 지난 날 생과부시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의지했던 주님께서는 단지 이 만큼의 안식만 허락하고 데려간 것이다.

인생사 너무도 고달픈 어머니에게 주님이 베푼 은총이었을까...

어머니 한창 나이 서른아홉 때였다.



▲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서(김정록)
지난 2월 참배 당시, 입구에 일본 극우파들이 불순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대형버스에 걸어놓은 채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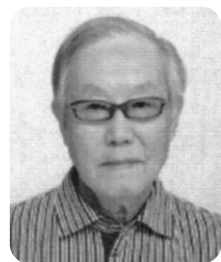
♣ 제95주년 3.1독립선언일 기념강연

지난 2월 26일(수) 10시에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95주년 3.1독립선언일 기념 강연'이 열렸다. 3.1독립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과정이라는 주제로 의암손병희 선생 기념사업회 손운 이사장의 강연에 이어 3.1독립정신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 중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의 강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독립정신과 동아시아의 평화

- 특히 비폭력 정신을 중심으로 -



나카츠카 아키라
일본, 나자여자대학 명예교수
(번역 :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

머리말 : 현대에 살아있는 3.1독립운동의 정신

금번 3.1독립운동 95주년 기념강연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그 옛날(일제 강점기에 한국 독립운동가 변호에 힘썼던-번역자 주)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변호사도 이곳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건물에서 한국의 여러분들과 함께 3.1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집회에 참가하여 강연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은 저에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존경하고 있는-번역자 주)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이 힘을 합하는 일이 중요함을 말하고, 동양평화를 위해 일본은 한국침략 등 잘못된 정책을 바꿀 것을 호소했습니다. 3.1독립선언은 대단히 이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원수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일본에 대해서 적의를 드러내지 않고 진정한 우호관계 수립을 외쳤습니다. 조선역사에 대한 자부와 독립을 향한 민족의 비원을 읊미하면서 민족적 증오를 드러내는 일 없이 조선독립이 세계평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역설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도의적으로도 격조 높은 참으로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은 정의, 인도, 생명의 존엄에 대한 민족적 요구, 자유정신의 발현으로써 조금도 배타적이지 아니하며, 민족의 정당한 의지를 발표하되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하라는, 비폭력정신이 넘치는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이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포화를 퍼부어 억압했습니다. 그로부터 9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3.1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각지에서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호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지금 다시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1. 오키나와의 미국 신기지에 반대하는 세계 지식인 성명과 국제서명

금년 1월 7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럽과 미국, 호주의 지식인 29명이 일본 오키나와현(沖縄県)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키나와현 나고시(名護市)의 헤노코(辺野古)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일은 “오키나와의 군사식민지 상태를 심화, 확대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하며 시가지 안에서 미군이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무조건 반환을 호소했습니다.

이 성명은 오키나와에 대규모의 해병대기지를 만들려는 세력에 대해 오키나와현 지사가

작년말 굴복한 상황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월 19일 치러진 나고시 시장선거는 후텐마로부터 기지 이설을 받아들일 것인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인가 하는 명확한 쟁점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관되게 “바다에도 육지에도 기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이나미네 스스무(稲嶺進) 시장이 재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선거 이틀 후 일본정부=아베내각은 기지건설 준비작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개시했습니다. 아베정권과 오바마정권은 오키나와의 모든 저항을 분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월 28일, 7일의 성명을 발표했던 지식인들이 아베 신조수상(安倍晋三)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헤노코 기지 건설계획 중지와 기노완시(宜野湾市)의 미국 해병대 후텐마 기지의 즉각 반환을 요구하는 「국제서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서명 발기인은 7일의 성명에 서명한 29명에서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초의 서명에 이름을 올린 한 사람, 피터 카즈닉 아메리칸대학 교수(역사학자, 함께 서명한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의 『또 하나의 미국사』의 공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나고시장 선거에서 (기지) 이설저지를 호소한 이나미네씨가 재선된 것은 가장 큰 기쁨이다. 이나미네씨는 지구 도처를 침식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저항하는 세계에서 용감한 사람들의 ‘얼굴’이 되었다.

첼머즈 존슨(국제정치학자)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자국령 외에도 7백에서 1천 개 이상의 기지를 둔 ‘기지제국’을 구축했다. 그리하여 군사주의에 바탕하여 과거 70년간 분쟁에 분쟁을 거듭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분쟁해결에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폭격과 침공은 기능하지 못했다. 오키나와를 기지로 오염시키더라도 일본과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실재는 그 반대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이여! 금후도 높은 금지로 용감하게 계속 싸워나가길 바라며, 당신들은 결코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루큐신보』2014년 1월 28일)

오랫동안 오키나와 사람들은 군사식민지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비폭력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데모, 선거, 소송, 농성, 학술 및 예술활동,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때로는 카누를 저어 해상의 망루에 몸을 묶고 정부가 시행하는 조사를 저지하는 일마저 했습니다. 군사식민지에 반대하는 이러한 비폭력운동이 지금 세계로부터 주목받아 지지를

모으게 된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의 비폭력정신은 지금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계승되어 그들의 움직임이 국제서명운동이라는 형태로 세계에 퍼져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계속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2. 청일전쟁 120년, 동학농민전쟁(동학농민혁명) 120년

한편, 금년 1월 22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포럼’ 때 일본의 아베수상이 각국 칼럼니스트와의 회견에서 현재의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경제적 의존이 높았던 영국과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대결하여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에 빗대어 세계에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정부는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되었다”고 반론했습니다만, 연말에 아베수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일로 아베수상의 ‘역사인식’이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큰 물의를 빚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지 100주년이 됩니다만, 일본이 이웃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부터 신용을 얻으려 한다면, 금년이 청일전쟁 120년이 되는 해이자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전쟁 120주년의 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일전쟁은 일본이 아시아를 압박하는 나라로 변한 (결정적-번역자) 계기가 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3.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해 무슨 짓을 했던가, 사실을 계속 은폐해온 일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근대에 들어와 일본이 조선에 대해 무력을 행사한 제 1보는 1875년의 강화도사건입니다. 이 강화도사건 이래, 일본의 공권력(정부와 군부)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사실을 왜곡하여 나라 안팎에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려왔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는 ① 청일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진실과, ② 일본군에 대해 조선인민의 항일투쟁이 일어났지만, 그 항일투쟁에 대해 일본정부와 일본군은 무슨

짓을 자행했던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한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청일전쟁은 조선왕궁점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일본정부가 내외에 선전한 청일전쟁의 전쟁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행한 최초의 무력행사는 조선의 수도, 서울의 왕궁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을 사실상 일본의 포로로 삼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때마침 청일전쟁 개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에 저는 후쿠시마현립도서관 ‘사토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참모본부에서 쓴 「일청전사(日淸戰史)」 초안으로부터 조선왕궁점령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해 1995년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두골)’이 홋카이도대학 문학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은 한국으로 봉환되었습니다만, 이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일본의 국립대학 연구실에서 조잡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문제는 일본의 학문과 학지(學知)에 있어 크나큰 반성을 촉구하는 문제로, 그 뒤의 역사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 유해봉환위원회’의 주요 멤버였던 박맹수 교수가 1997년부터 홋카이도대학에 유학을 와서, 홋카이도대학의 이노우에 가즈오 교수와 함께 동학농민군에 대해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무슨 짓을 자행했던가, 그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박맹수 교수가 조선왕궁 점령에 관한 진상을 밝힌 저의 저서 『역사의 위조를 밝힌다』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책은 박교수에 의해 번역되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푸른역사, 2002년)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군 최초의 무력행사였던 조선왕궁점령에 대해서는 당시 대본영 참모였던 도조 히데노리(東條英教)가 쓴 기록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도조 히데노리는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부친입니다. 그는 청일전쟁 당시 대본영 참모였습니다. 당시 39세로 육군소좌, 육군대학교 1기생으로 수석 졸업하였고, 청일전쟁때는 군사지도의 최고 실력자였던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참모차장에게 선발되어 청일전쟁에 대한 전쟁지도의 중추로써 일했습니다.

그는 개인 저작으로 『정청용병격벽청담』이라는 제목의 간략한 일청전사를 남겼습니다.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정청용병격벽청담』에 조선왕궁점령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본군이 서울로부터 남진하여 청국군과 교전하게 되자 오토리 케이스케 조선주재 공사는 외교관으로서 직책상 큰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군이 청국병과 충돌하는데에 적당한 구실을 얻는 일이었다.(중략) (그 방법이-번역자) 가장 온당하여 일본이 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는 조선정부 측으로부터 청국병 격퇴를 일본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것을 조선정부로부터(일본측에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써 조선정부를 협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번역자)이었다. 일본의 병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곤혹스러운 난문(難問)을 들이대고, 짧은 기일을 정해서 확답을 요구하되, 불만족스런 회답을 하거나 또는 회답을 하지 않을 때는 무력으로 협박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청일전쟁 개전을 위한 정당한 구실을 찾을 수 없자 “(그 방법이-번역자) 가장 온당하여 일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바로 조선왕궁 점령이었다는 사실을 대본영의 참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나라에, 더욱이 그 정치의 중추(中樞)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국왕을 사실상 포로로 삼을 사실을 세계 여러 나라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본정부와 일본군은 왕궁에 대한 무력공격을 “한일 양국 병사간의 우연한 충돌사건”이라고 조작하였고, 조선정부에 대해서도 그 사건의 진상규명은 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강요하였습니다.

(2) 항일봉기한 조선인 전원 살육 작전

그러나 왕궁점령에서 시작된 일본군의 조선침공에 대해 봄의 봉기(제1차 동학농민혁명-번역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가히 ‘전 조선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하고 그 위에 관민(官民)도 참가한 항일의 기치를 선명히 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

이 같은 조선인민의 항일투쟁에 대해 일본 대본영은 “모조리 살육하라”는 살육명령(1894년 10월 27일자-번역자)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농민군 탄압 전담부대(후비보병 제19대대-번역자)를 파견하여 1894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제노사이드(대량학살-번역자) 작전을 전개, 조선의 서남단의 진도(珍島)까지 동학농민군을 내몰아 문자 그대로 전원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박맹수 교수와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인 이노우에 가즈오(井上勝生) 교수, 그리고 저 3인에 의한 『동학농민전쟁과 일본-또 하나의 청일전쟁』(일본 도쿄, 코분켄출판사, 2013년 6월)

과, 이노우에 가즈오 교수의 역작 『메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일본 도쿄, 이와나미서점, 2013년 8월)는 그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연구성과입니다. 전자는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 책을 읽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핵심 내용 두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 이 전원살육 작전은 일본 군부가 제멋대로 자행한 것이 아니라 수상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도 참가하여 결정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에도막부를 타도하는 운동을 벌였을 때부터 함께 활동했던 맹우(盟友)로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내무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청일전쟁 중에 내무대신을 그만두고 조선주재 공사가 되는데, 조선에 부임하자마자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 직면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수상 이토 히로부미에게 전보를 쳐서 동학농민군 탄압 전담부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노우에 카오루 공사로부터 전보를 받은 이토 히로부미 수상은 히로시마의 대본영에서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와 상의하여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살육하라”는 전원살육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수장도 직접 참가한 천황 직속의 전시하 일본 최고기관인 대본영이 결정한 군사작전에 의해 3만에서 5만에 이르는 조선인민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독립을 위해’ 일본정부가 벌인 청일전쟁의 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일전쟁이 근대일본이 저지른 과오의 제1보였다”고 하는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원살육 작전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2)-2 동학농민군 전원살육 작전의 실상을 밝혀주는 일본군 병사의 종군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홋카이도대학 이노우에 가즈오 교수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일본군의 제노사이드작전 실태를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와 박맹수 교수, 충북대 신영우 교수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벌이는 한편, 농민군 진압 전담부대인 후비보병 제19대대 병사들의 출신지인 일본의 시코쿠(四國)의 4개현(에히메현, 카가와현, 토쿠시마현, 코치현)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3월에 농민군 ‘전원살육 작전’의 실상을 밝혀주는 기록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농민군 ‘전원살육 작전’에서는 농민군과의 전투에서 전사 한 단 1명, 토쿠시마현 출신의 ‘스기노 토라키치(杉野虎吉)’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노우에 가즈오 교수는 그 병사의 묘 등을 아주 정성스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현지 향토 사가의 협력으로 농민군 살육작전의 실태를 상세하게 기록한 어느 병사의 「진중일지(陣中日誌)」(원본은 별지 참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지 속에는 동학농민군 섬멸 작전의 전술 할 만한 양상이 거의 매일같이 극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진중일지」로부터 한가지 사례만을 소개해 두고자 합니다. 조선 남부로 내몰아 추격한 동학농민군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찾아내서 죽인 해남(海南, 현재의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벌인 작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1895년 1월 31일) 동도(=동학농민군)중에 살아남은 자 7명을 잡아와, 그들을 성 밖의 밭 가운데 한 줄로 세운 다음, 총에 대검을 착용한 후, 모리타 콘츠(森田近通) 1등 군조의 호령에 따라 일제히 돌격하여 그들을 찔러 죽였는데, 구경하던 조선인들과 통위병 병사(일본군 지휘하에 있던 조선정부군 병사)등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앞의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102쪽, 원본은 별지 참조)

항일 봉기한 동학농민군 포로를 총검으로 호령 일하(一下)에 돌격하여 찔러 죽이는 일은 쇼와(昭和) 시대의 전쟁, 특히 중일(中日) 전면 전쟁 때 다발했습니다. 그런 잔인한 살육행위가 메이지시대의 전쟁, 청일전쟁 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일본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스쿠니신사충혼사(靖國神社忠魂史)』제1권(1935년)에는 ‘스기노 토라키치상등병’이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군이 최초로 청국군과 교전한 성환전투(1894년 7월 29일)에서 전사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스기노는 7월 29일 경에는 후비병(後備兵) 소집을 받고 아직 시코쿠 에히메현 마츠야마(松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역사 위조가 분명합니다.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 천황의 군대에게 조선인의 항일투쟁 등이 있었을 리 없고, 따라서 항일봉기한 조선인에게 총격을 받고 죽은 일본 병사 등이 있을 리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입니다.

4. 사실을 탐구하지 않고 편견만을 수용해 온 일본인-일본의 주체적 문제

(1) 근대일본에서 펼쳐진 조선침략 정당화 논리

일본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일본의 ‘방위전쟁’ 이었다고 하는 견해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조선에 대한 견해도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선은 자기나라를 자력으로 지킬 수 없었다.
 - ② 경제적으로도 정체되어 낙오한 나라였다.
 - ③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국(大國)에 의존하는 자주성 없는 나라였다. “조선정체론, 낙오론, 타율론”이라고 부를 만한 견해입니다.
- 한국의 여러분들께는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만, 위 내용은 후쿠다 토쿠조(福田徳三)와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 등 대일본제국 시대의 쟁쟁한 학자, 지식인들이 주장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일본의 국민적 작가라고 칭송받고 있는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 ;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조선정체론, 낙오론, 타율론”으로는 조선 독자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

19세기말의 조선왕조였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 각국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 조선이 조약을 맺어 국교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일본, 미국, 청국, 영국, 독일, 이태리,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9개국 이었습니다. 러일전쟁 직전에는 벨기에, 덴마크를 합해 11개국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정체, 낙오, 타율의 나라”라고 하는 견해로는 청일, 러일전쟁 시기에 조선이 이 정도로 많은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독자적인 외교적 움직임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왕조 대한제국은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가지고 국왕, 귀족, 관료들이 곤란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선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인들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호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희생양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일본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 아니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든가, 그 진실을 덮기 위한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이것은 ‘일본문제’입니다.

조선 “정체, 낙오, 타율론”으로는 조선독자의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조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선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저항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그 같은 조선 측의 저항을 공표(公表)할 수 없는 수법으로 방해하고 압살해 왔습니다. 청일전쟁 때는 조선의 왕궁을 (불법으로-번역자) 점령했으며, 항일봉기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모조리 살육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던 것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러일전쟁 때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일본군의 모략이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열강의 하나로 급성장함으로써 모략 때문에 처벌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수법은 그 뒤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쇼와의 전쟁’ (만주사변과 중일 전면전쟁, 태평양전쟁)은 ‘메이지의 전쟁’(청일전쟁, 의화단 진압전쟁, 러일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맺음말 : 왜곡된 ‘역사인식’ 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청일전쟁으로부터 불과 반세기 만에 천황제 국가 일본제국은 붕괴했습니다. 그 패전을 맞았을 때 메이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과거사 청산을 해야 했습니다만,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免責)이 최대 원인이 되어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침략문제를 자기 자신들의 문제로 삼아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 이래 현저해진 메이지일본의 역사위조는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채, 오늘의 일본의 퇴폐, 퇴폐를 퇴폐로 자인(自認)할 수도 없는 역사적 무지, 국제감각 불감증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나라건 다른 나라에게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번역자) 역사가 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과 인디언 학살과 흑인에 대한 차별을 자랑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그 역사를-번역자) 가르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번역자) 역사를 직시하여 다음 세

대에게 바르게 계승하게 하는 (역사교육의-번역자) 중요성이 강하게 의식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그 점에서 뒤쳐져 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없는 과거를 인정하는데서 프라이드를 갖자” 이것이 (일본에 대한 나의-번역자) 조언이다.
 (「흔들리는 한중일, 해외지식인의 눈」①, 제럴드 커티스 미국콜롬비아대학 교수의 의견, 『류큐신보』2014년 1월 6일자)

왜곡된 ‘역사인식’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경청할 만한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 민간교류의 길-「동학농민군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

우리들은 2006년부터 「한일 시민이 함께 하는, 동학농민군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일본 후지국제여행사 기획)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하는 한일 민간교류의 여행입니다. 저는 그 여행을 통해 민간교류야말로 상호이해는 물론이려니와, 국가라는 틀을 뛰어넘어 과거 역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한걸음 더 나아가-번역자)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생명평화(生命平和) 실현을 지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박맹수 교수와 살아있는 한 이 답사 여행을 계속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금년에도 다가오는 가을(10월 중순)에 답사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도 만나 뵈 수 있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

1929년생. 교토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부터 1993년까지 나라여자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1960년대부터 청일전쟁 연구를 계기로 지금까지 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에 천착해온 지한파(知韓派) 학자이자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하여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해 온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의 한 사람이다. 2001년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때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 운동을 위한 호소문을 앞장 서 발표하였고, 2001년 5월 전주에서 개최된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을 대표하여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일본학술회의 회원, 나라현 역사교육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저서 및 논문

『근대일본의 조선인식』, 성해준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5년
 『일본인이 본 역사 속의 한국-한림신서일본학총서 73』, 이규수 옮김, 소화, 2003년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박맹수 옮김, 푸른역사, 2002년
 『근대 한국과 일본-범우사상신서 54』, 종합출판범우(범우사), 1995년
 『‘한국병합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녹색평론> 109호, 2009년 11월

※ 나카츠카 교수의 한일 시민교류

2002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동학전적지 여행(강화도, 서울, 전주, 진도)
 2003년 모심과 살림연구소 일본 시민단체 연수 기행(나라, 고베, 홋카이도)
 2004년 모심과 살림연구소 일본 시민단체 연수 기행(홋카이도)
 2006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동학전적지 여행(강화도, 서울, 전주, 진도)
 2007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동학전적지 여행(서울, 전주, 진도, 부안)
 2008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동학전적지 여행(서울, 익산, 전주, 공주)
 2009년~2010년 나카츠카 교수 일행 한일공동 동학전적지 기행(서울, 충주, 보은, 전주, 공주)

○ 박맹수 교수

1955년 출생. 현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재)모심과 살림의 이사장 역임

* 주요 저서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2011, 모시는 사람들),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2009, 모시는 사람들), 『동경대전』(2009, 지만지총서), 『이단의 민중반란』(역서, 2008, 역사비평사), 『개정판 한국근대사강의』(공저, 2007, 한울아카데미), 『원불교학워크북』(2006, 원광대출판국), 『한국사상사입문』(공저, 2006, 서문문화사),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역서, 2002, 푸른역사)

♣ 3.1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결성식 및 9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월 26일(수) 한국언론재단에서 3.1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결성식 및 9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3.1혁명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에 거족적으로 항거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3.1혁명을 계기로 민주공화제 이념이 전면적으로 전파되었으며, 민중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 또한 크게 높아졌다.

이에 오는 2019년 3.1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3.1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확산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행사 1부에는 ‘3.1정신 재정립의 현재적 의의’라는 주제로 이만열(前국사편찬위원장)의 기념강연과 함께 3.1혁명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었고 2부에는 ‘제국에서 민국으로’라는 대주제로 3.1혁명 95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3.1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발기인 명단

• 발기인(가나다 순) •

▪ 독립운동 단체·유족 대표, 각계 원로(발족과 동시 고문 위촉)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전 상지대 총장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병수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용	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석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김수옥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 후손
김영천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회장
김우전	동천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 회장·전 광복회장
김원용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재경	우사김규식연구회 회장
김진현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회장
김창국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약산김원봉장학회 회장
김효순	포럼'진실과정의' 공동대표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도 법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정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명 진	단지불회 회주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중기	민족민주열사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현서	전 한양대 교수
법 타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전 성균관대 교수
성대경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전 성균관대 교수
송기인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전 서울대 교수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전 가톨릭대 교수
안재용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오 현	만해사상실천협의회 이사장·신흥사 회주
유광연	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유종현	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회장
윤경빈	전 광복회 회장
윤경자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후손
윤광석	백산안희제선생독립정신계승사업회 회장
윤여준	이시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전 숙명여대 교수
이문창	자유공동체운동연합회 준비위원장
이부영	동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석태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
이선종	원불교 은덕문화원장·전 서울교구 교구장
이성순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
이연복	전 서울교대 교수
이우재	매현운봉길월진회 회장
이운배	홍사단 이사장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전 서원대 석좌교수
이재정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종찬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장·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후손
이항중	광복회 경북지부장·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 후손
이해동	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위원장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임추섭	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병화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전기호	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전 경희대 교수
정영희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조 광	안중근연구소 소장·전 고려대 교수
조동걸	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전 국민대 교수
차영조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청 화	전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원장
최만립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 후손·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최 염	독립운동가 최준 선생 후손·경주 최부자집 주손
학 담	용성스님 문도 대표·대승사 회주
한승현	전 동학농민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외국인들이 본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 역사에서 교훈을 -



김 영 관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I. 오늘의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오늘의 우리 사회상 -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집과 편 가르기, 권 부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부패, 모순된 행태(行態)에 대한 경고와 시정(是正) 촉구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무관심과, 밖으로부터의 폭풍우에 둔감한 오불관여(吾不關與)의 태도는 한 세기 전의 쓰라리고 아팠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였는가!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이를 오늘과 내일에 살리지 못한다면 앞날의 희망은 없다고 하는 격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이나 국가 는 미래가 없다. 한 세기 전의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그리고 무관심과 침묵으로 나라를 잃었 던 역사를 반추(反芻)해보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어 앞날을 다짐해 보자.

II. 나라 잃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1. 중국인이 본 우리의 국치(國恥)

우리는 흔히들 일본의 침략근성에 희생되어 나라를 잃었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당시의 외국인들, 특히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웃 중국의 선각자들이 지적한, 우리에게 대한 서릿발 같은 비판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赤裸裸)한 역사적 자화상이다.

그들의 지적을 살펴보자. 먼저, 청조(淸朝) 말, 기울어져 가는 청의 개혁을 부르짖은 근대화의 선각자 강유웨이(康有爲)는, 그가 기고한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의 『한국통사(韓國痛史)』서문에서 “...조선인들은 그들이(일본을 지칭) 독립하는 것을 돕는다며 황제라고 불리 주자, 거국적으로 환영하면서, 일본사람들의 의(義)를 숭상하는 덕(德)을 칭송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권력을 장악한 귀족들은 금전과 작위(爵位)를 받고, 그리고 이간책을 곧 이들이면서, 그들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고, 더구나 그들을 위해 일까지 대신해 줌으로써, 스스로 멸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13년 만에 영토를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위선을 지적하고, 조선인들의 허황된 기대를 꼬집고, 무능으로 나라를 잃은 것을 비판했다.

청조 말기의 무술유신(戊戌維新)의 주역이고, 근세 중국의 정치·문화·사상계의 중진이었던 량치차오(梁啓超)는, 조선이 망한 원인을 왕실, 정치, 사회에서 찾고 있다. 즉 왕실의 권력다툼과 부패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대원군, 고종, 명성황후 등이 망국의 책임을 져야 하며, 권리를 농단하는 특권계급인 양반들은, 착취와 약탈을 일삼아 사복을 채우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정치도 모르고 세계의 대세도 모르면서, 친일(親日), 친러(親露), 친중(親中) 등 사대주의(事大主義)에 흐르고 엽관(獵官)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공론(空論)을 즐기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게으르며, 고관들도 오늘의 권세에 만족하면서, 내일의 망국에는 관심도 없다. 일본과 합병 후에는, 이웃나라 사람들조차 슬퍼하고 있는데, 조선의 고관들은 한층 신정부에 아첨 영합하고 매일 엽관운동에만 매달리고 있다. 조선 사회는 후안무치(厚顏無恥), 음험(陰險)하고 악랄(惡辣)한 사람이 많고, 절조(節操)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망국에 이른 것이다”라고도 하고 있다. 그는 조선을 멸망시킨 것은 조선인 자신이지, 일본 때문이 아니라며, 조선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곡(正鵠)을 찌른 옳은 지적이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발행하고 있던, 대륙보(大陸報) 1919년 5월 초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조선이 독립을 상실한 원인 중 “반(半)은 일본이 병력으로 침략한 때문이요, 나머지 반은, 그 나라 사람의 매국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내분이 끊이지 않고, 국세가 기울고, 관료가 부패하여, 오직 권세와 이록(利祿)만을 다투고… 당파간의 정쟁(政爭)이 심하여, 국가와 권리를 가볍게 넘겨주고, 외부의 원조를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를 모조리 배척하여, 끝내 망국의 화를 자초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일본과 내통하여 나라를 파는데 앞장섰던, 내부의 암적 존재였던 악질 친일분자들은, 빛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로서는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은 존재들이다. 외적(外賊)보다 내부의 반역자가 더 가증스럽고 무섭다고 지적한 중국인 식자(識者)들이 있다. 한시준(韓詩俊) 단국대학교 교수는, 논문『중국인이 본 안중근』에서 “…중국인 저자(著者)는 안중근이 이등박문보다 이완용(李完用)이나 이용구(李容九)같은 매국노들을 먼저 죽여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등박문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완용, 이용구 등과 같은 사람에 의하여 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라가 망하는 일차적 요인은 내부의 간신(奸臣)들 때문이니, 우선 내부의 간신들로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중국인들의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은 그들의 지적이지만 옳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 일제 하(日帝 下) 36년간에 걸쳐 존재하였던, 질 좋지 않은 친일파들을 국가에 대한 배반자나 역적으로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니 부끄럽기만 하다.

2. 미국·영국인이 본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1928년 조선에 와서 2년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서울대학교 전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영국의 소설가 드레이크(Drake)는, 조선 사람에 대하여 평하기를 “어떤 민족이 강압적으로 통치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 내부에 그럴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 멸망한 민족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이, 악(惡)의 무고한 희생자들이라고, 심약(心弱)하게 동정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영국인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선교사이며 주 조선(駐 朝鮮) 외교관이었던, 미국인 알렌(H. N. Allen)은 “불쌍한 조선 사람들아! 그대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무사안일의 세월을 보냈다…한때는 저들(일본을 지칭)

의 선생이었으나, 지금은 늘어빠진 퇴역이 된, 현 왕조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안일과 무능함을 꾸짖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저서 『알렌일기』에서, 초대 주미공사로 부임하는(1887. 12) 박정양(朴定陽) 일행의 부끄러운 선중(船中) 생활을 묘사하였는데, 외면하고 싶은 그들의 행태로 보아, 당시의 우리 지도자층이 얼마나 국제 정세나 국제 감각에 어두웠고 무감각하였는지 엿볼 수 있다. 당시 미국에서, 청(淸)이 종주국(宗主國) 행세를 하면서 우리의 외교를 방해한 것과 더불어, 한심했던 우리의 외교 실태였다.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한제국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당시의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1905년 1월 국무장관 헤이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으로 토로(吐露)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본에 간섭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 하지 못한 일을, 자기 나라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위하여 해주겠다고 나설 국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단언하면서 조선의 무능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구한말(舊韓末-19세기 말) 네(4)번이나 한국을 찾은 영국 여류 여행가 버드(I. L. Bird)여사는 구한말의 난맥상, 극심한 부패, 파당행위, 국민들의 무기력 등을 지적하면서 “조선은 그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어, 외부에서 개혁할 수밖에 없다”라고 까지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정확히 적시(揭示)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Ⅲ. 주위의 불합리한 작은 것부터 시정, 실천을

오늘의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사회상을 돌아보면서, 한 세기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오늘과 앞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대담론(巨大談論)을 앞세우기보다, 목전의 손쉽고 불합리 한 것부터, 먼저 시정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먼저, 국란 시, 국권을 되찾아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나라의 맥을 잇고자 항일 투쟁한, 오늘의 실종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국군이 있던 광복군의 위상(位相)을 제대로 되찾고 평가하여, 제자리에 자리매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은 고

사하고, 임정(臨政) 수립 기념일조차도 제대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현재 4월 13일을 임정수립기념일로 하고 있으나 4월 11일이어야 한다)이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추의 한을 안겨준 한일합병일(韓日合併日) - 8월 29일 국치일(國恥日)을, 우리는 망각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 흔한 여러 기념일, 기념행사 어디에서도 이날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리로서는 와신상담(臥薪嘗膽), 절치부심(切齒腐心) 앞날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너무나도 무감각, 무관심한 오늘의 우리들이다.

또한,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8월 15일을 광복절(光復節·정부 수립일) 아닌 건국절(建國節)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데, 굳이 이날을 건국일로 하자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제헌헌법(制憲憲法)은 전문(前文)에서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며 “계승”, “재건”을 명시하고, 오늘의 헌법(제6 공화국 헌법) 전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라며 “법통”, “계승”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후, 첫 발행한 관보(官報) 제1호의 발행일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되어 있는 등 거증(舉證)자료도 많다)

10월 1일 국군의 날 문제도, 이의 모순을 수없이 지적 거론하였는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헌법 전문(前文)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취지로 보나, 광복군의 역사적 전통계승 사실(史實), 실질적 독립투쟁 활동에서 보나, 그리고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조정되어야 한다.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이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합당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에, 이날을 국군의 날로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도(正道)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본받아야 할 인상적인 예를, 영국에서 보았다. 어느 지방 소도시 작은 공원 내의 아담한 기념비에, 그 고장 출신 제1·2차 세계대전 전사자와 심지어 6·25 전쟁 전사자 이름도, 동판에 양각(陽刻)되어 있었는데, 나라에 헌신한 공적을 영원히 기리고자 하는, 그들의 애국 충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기념비는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다. 영국이 한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도, 거창한 전시적(展示的)인 기념비나, 유명인사들(역사적·사회적으로)의 동상 건립 위주의, 구태(舊態)에서 벗어나, 묵묵히 그들 뒤에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수많은 무명의 그 고장 출신 애국자들에 대하여, 영국의 예와 같이 조출하고 아담한 기념비로 현창(顯彰)해서, 자기 혈족(血族)의 업적이나, 그 고장의 영예(榮譽)를, 일상적으로 피부로 접할 수 있도록 하

는, 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민의, 제대로 된 역사인식 고양(高揚)을 위해서도 국사교육의 강화가 필수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우리 주변의 예를 거론하여 보았는데,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과, 확고한 실천의지의 발로(發露)만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요망된다.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권, 행정권 기타 모든 사회분야에 대한, 국민 감시 - 합당한 선거권 등 행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말만을 앞세운 허언(虛言)이나 장담(壯談)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기할 수 없다.

IV. 역사에서 교훈을

지난 역사에서, 미래를 찾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았는데, 제대로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역사를 정시(正視)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남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나(우리)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정도(正道)를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유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는 자세를 우리는 언제나 견지(堅持)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변의 불합리한 것부터, 그리고 작고 손쉬운 것부터 즉시 실천으로 옮기자. 

충남 공주지역의 독립운동



정 을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충남 공주지역의 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독립운동과 흐름을 함께 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주지역의 독립운동은 크게 의병운동, 민적거부, 자결, 애국계몽운동, 3.1운동, 동맹휴교,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들의 항일운동, 신간회운동, 교육문화운동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먼저 충남지역에서의 의병투쟁하면 대표적인 전투가 홍주의병이었으나, 서산과 당진 등 서해안지역을 비롯하여 공주와 논산 등의 계룡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도 소규모의 부대가 편성되어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임대수(林大洙) 의병이 1907년 8월부터 1908년 2월까지 공주(公州)·천안(天安)을 비롯하여, 청양(靑陽)·당진(唐津)·보령(保寧) 등 충남 일대에서 활약하면서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의 활동은 1911년까지 이어졌으나, 그 해 6월 공주에서 일제 군경과 교전하던 중 동지 6명과 함께 전사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뿐 아니라 공주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확인되는데, 1907년 고향인 공주군(公州郡) 용당(龍堂)에서 5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거의했던 노원섭(盧元燮) 의병장이 대표적이다. 김원식은 1907년 12월 공주에서 의병으로서 군자금 모집과 군사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박덕여(朴德汝) 의병장도 1908년 2월 9일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원당리

(元堂里)에서 일본 경찰과 교전하다가 전사 순국한 인물이다. 김규호 역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의병부대들에서 산발적으로 투쟁을 하였다. 그는 일본군의 동태를 의병에게 알려주는 연락책의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공주군 일대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의병에게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같은 해 11월에 체포되어 이송되던 중 피살되었다.

이외에도 공주지역에서 의병들의 접전 기록이 확인된다. 1908년 1월 7일 계룡산에서 공주(公州)수비대 1소대와 의병 50명과의 접전이 있었고, 21일에 공주 서북 약 20리 지점에서 조치원수비기병대(鳥致院守備騎兵隊)와 의병 50명과의 접전, 31일에 공주 서북 약 30리 반지점에서 공주파견기병대(公州派遣騎兵隊)와 의병 50명과의 접전, 3월 28일 공주 동북방 20리 지점에서 공주수비대(公州守備隊)와 의병 150명과의 접전, 같은 날 공주 서방 80리 지점에서 강경수비대(江景守備隊)와 의병 25명과의 접전, 3월 29일 공주 동북 20리 지점에서 공주파견기병대(公州派遣騎兵隊)와 의병 40명과의 접전이 벌어졌다. 김대장의진 역시 4월 11일 오전 9시, 공주 동남쪽 2리반 지점의 난당리(蘭堂里)에서 약 17명의 병력으로 공주수비대(公州守備隊) 파견기병 제4중대 소속 궁택(宮澤) 군조(軍曹)가 이끄는 기병(騎兵) 부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대장의진은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멸하였다. 김성록도 1908년 공주시 정안(正安) 일대에서 의병에 가담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군세를 확장하기 위해 의병을 규합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일경들과 교전 중에 전사 순국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공주지역의 의병전투는 1907년 8월부터 1911년까지 전개되었다. 당시 일제는 각 지역에 주둔한 수비대와 기병대를 동원하여 이 지역의 의병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그들의 표현대로 “약간의 손상을 주었을 뿐 아직 진정시키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독립운동으로 공주지역에서는 민적을 거부한다거나 자결을 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 인물들이 있었다. 공주의 유생이었던 이철영(李喆榮, 1867~1919)은 민적을 거부하는 등 항일운동을 독자적으로 펼쳤다. 이철영은 자신의 활동을 저지하며 협박하던 일경들을 향해 “차라리 죽어 조선의 귀신이 될지언정 살아서 일본 백성이 되지 아니하겠다”면서 필사적으로 민적을 거부하였다. 결국 그는 수차레에 걸쳐 옥고를 치르던 중 1919년 옥고의 여독으로 결국 순국하였다. 이뿐 아니라 오강표(吳剛杓, 1843~1910)는 1910년 일제의 국권강탈에 항거하여 자결한 애국 순절지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공주군 사곡면 월가리 도덕골에

서 태어난 오강표는 일제의 강요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해서 을사오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관찰사가 상소문 올리는 것을 거절하자 분개하여 아편을 구입하여 자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결국 1910년 강제병합 소식을 듣고 공주 향교의 명륜당(明倫堂)에 들어가 대성통곡 한 뒤 자결하였다.

다음으로 공주지역의 애국계몽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공주를 비롯하여 충남지역이 보수적인 유생층이 두터웠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지 애국계몽운동을 펼치던 대한자강회가 전국에 26개소의 지회를 설치하였는데, 충남에서는 직산 1개소에 지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주출신이었던 심원택이 대한자강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이뿐 아니라 애국계몽의 가장 큰 움직임이었던 국채보상운동이 공주에서도 진행되었다. 충남지역에서는 190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연금 모금을 추진하게 되었다. 충남의 각지에서 호중국채보상의조회, 국채보상기성회 등 20개소에 달하는 국채보상금 수합소가 설치되어 활동하였다. 이에 공주지역의 유지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였다. 특히나 공주지역에서는 갑사나 동학사의 승려들의 의연도 이어졌다.

충남지역과 공주지역에서 가장 활발했던 독립운동은 3.1운동이었다. 공주의 3.1운동은 박장래가 1919년 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보고 조선독립가(獨立歌)를 배워 공주로 왔다. 그는 3월 10일 공주읍내 대화정(大和町) 김수철(金洙喆) 방에서 기숙하면서 그곳에 머물던 영명학교 재학생 안기수(安期壽)와 그 학교 졸업생인 신의득(申義得)에게 서울의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며, 공주에는 영명학교 외에도 농업학교와 보통학교도 있는데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은 비겁한 것 아니냐면서 학생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그들에게 독립가를 가르쳤고, 그 가사(歌詞)를 베끼게 하는 공주지역의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형성되면서 공주지역의 3.1운동은 3월 14일 오후 4시경 유구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충남지역의 3.1운동이 3월 2일부터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었을 때 공주지역은 빠른 시기였다. 유구읍 출신인 황병주(黃秉周)는 손병희가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고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시장에서 이승현, 이흥규, 조병옥 등 군중 30여 명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모자를 벗어 흔들고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 만세 군중들은 우(牛)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독립만세를 불렀고, 일경 고산(高山)순사의 제지에도 만세 군중은 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고산순사가

박용진 순사보에게 황병주를 주재소로 연행하게 하였다. 이에 이승현(李升鉉, 聖鉉)은 시장에 있는 약 100여 명의 군중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라며 황병주를 구출하러 주재소로 가자고 독려했다. 이승현과 황연성(黃璉性)의 주도로 100여 명의 군중들은 황병주의 구출을 위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주재소로 이동하여 고산순사를 공격하였고, 주재소의 문, 등(燈), 유리창 등 일제 치안기관의 시설물을 파괴하였다. 이뿐 아니라 노상우(盧相羽)는 주재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하재옥의 집 앞에서 박준빈(朴準斌), 황연성, 유석우, 이우상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황병주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고산순사의 가슴에 타격을 가하였으며, 주재소 공격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4월 1일 공주면에 위치한 공주시장과 정안면 석송리·광정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다. 공주시장의 독립만세운동은 강윤과 유우석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인 김관회(金寬會), 이규상(李圭尙), 현언동(玄彦東)과 졸업생 김사현(金士賢), 학생 오익표(吳翼杓), 안성호(安聖鎬), 목사 현석칠(玄錫七)과 천안에 있었던 안창호(安昌浩) 목사 등은 3월 24일 밤 9시 공주면 대화정(大和町) 사립영명학교(감리교회에서 설립) 교실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공감하여 4월 1일 오후 공주 장날에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김관회 선생이 영명학교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하였고, 김관회 선생으로부터 학생동원 지시를 받은 김수철이 3월 30일 자신의 집에 대표급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 유관순의 오빠인 유우석(준석), 노명우, 강윤, 윤봉균이 모였으며,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의 취지에 모두 찬성하여 그 방법을 협의하였다. 이튿날인 3월 31일 오후 3시경 이 다섯명은 영명학교 기숙사에 모여 독립선언서에 바탕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고, 학교 등사판을 이용해 시위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격문 약 1천매를 등사하였다. 또한 이규남은 3월 29일 김수철(金洙喆)의 방문을 받고 4월 1일 공주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받고, 자신의 집에서 태극기 4기(旗)를 직접 제작하였다. 그는 김수철에게 태극기 3기, 이규상에게 1기를 전달하였다. 김수철은 본인이 태극기 1기를 갖고 노명우(盧明愚)·윤봉균(尹鳳均)에게, 이규상은 김현경(金賢敬)에게 전달하였다. 드디어 4월 1일 오후 2시 유우석(준석)과 노명우, 강윤은 등사한 선언서와 격문을 나누어 숨긴 채 이규남이 만든 태극기를 갖고 공주 장터로 향했다. 그들은 장터에 있는 군중들 가운데 섞여들어 선언서와 격문을 나누어주었고, 감추어 갖고 온 태극기를 일제히 꺼내 장터 높이 세웠다. 이들이 온 힘을 다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 장터의 군중들이 일제히 호응하여 만세소리가 공주 읍내에 퍼져나갔다. 경천 소학교

여교사 김현경의 주도로 여학생들도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공주시장의 만세운동과 같은 날 전개된 정안면 석송리·광정리의 만세운동은 이기한(李綺漢)이 마을 주민들에게 “모두 나를 따르라” 하며 앞장을 섰다. 이에 이병억(李秉億), 이동안(李東案), 정재철(鄭在喆), 노규한, 윤원식, 이동엽, 최태식, 황타관 등 주민 20~30명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광정리로 이동하였다. 내송리에서는 운궁리 주민 20여 명이 합세하였다. 광정리에 도착한 만세 군중들은 먼저 일본인 거주지와 정미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주재소를 공격하였다. 이기한은 “주재소를 파괴하자”, “왜 구경만 하느냐?”라며 주재소 파괴를 독려했다. 주재소가 파괴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공주경찰서는 순사 2명, 순사보 1명, 헌병군조 1명, 병졸 5명을 자동차로 광정리에 급파하여 오후 4시 40분경에 석송리 주막 김원일 집 앞에 이르렀다. 광정리에서 석송리로 돌아와서 주막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 주민들은 도로로 뛰어 나아가 자동차 진행을 막고 손을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목원(木原)순사가 이동안을 주도자로 지목하고 체포하려고 왼손을 결박하고 오른손마저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장기현(張基鉉), 정화순(鄭化順), 문백룡(文白龍), 정재철, 서순석 등이 함께 “그가 무슨 죄가 있어 잡아 가느냐?”며 고함을 치고 목원순사를 떠밀었다. 이어 마을 주민 4~50여 명과 일경들의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이동안 체포에 실패한 일경들은 정재철과 서광순(徐匡淳)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고, 김정쇠(金正釧)·전정길(全鼎吉)은 목원순사에게 덤벼 체포를 저지하였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결국 일경들이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병림이 순국하는 등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다시 광정리로 이동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고, 이 독립만세운동은 4월 3일까지 계속 전개되었다.

뒤이어 4월 4일에는 옥룡동(玉龍洞, 주외면 용당리) 주민 1천여 명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계룡면(鷄龍面)에서는 4월 2일 경천 시장에서 1천여명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고, 같은 날 우성면(牛城面)에서는 밤에 도천리(道川里)와 쌍신동(雙新洞) 주민들이 횃불을 올리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동대리(銅大里) 주민들도 독립만세를 불렀다. 탄천면(灘川面)에서는 4월 3일 밤 면내 각 동리 약 1천 5백명 주민들이 횃불을 올리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인면(利仁面)에서는 4월 4일에 면민 1천 5백여 명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공주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은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3개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다음으로 1920년대 학생들이 일제의 노예적인 식민지 교육에 항거하여 동맹휴학을 벌이는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학생운동은 광주학생운동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충남지역에도 파급되었다. 이철하는 1927년 6월 공주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학생들 앞에서 한국 사

람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교장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가 구타와 함께 퇴학을 당하였다. 이에 분노한 동급생 50여 명은 동년 7월 2일 교장 배척 등 6개 조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기습 맹휴를 단행하였으며, 2학년생 90여 명도 동조휴학을 결의하였다. 뒤이어 1930년 1월 공주고보, 공주영명학교, 공주금성보통학교, 공주 유구보통학교 등에서 맹휴 또는 만세시위가 있었다. 공주 출신인물인 박명렬(朴命烈/朴明烈, 1912.7~미상)은 공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여 벌인 공주고보생들의 동맹휴학과 반일 가두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였다. 그 후 공주고보생 김순태(金淳泰), 공주소년연맹 위원장 안병두(安炳斗) 등과 함께 반전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1932년 3월 5일경 영명학교(永明學校)를 비롯한 읍내 곳곳에 반전벽보를 붙이고 격문을 뿌렸다. 이후에도 공주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반일사상을 고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뿐 아니라 1936년 3월 당시 공주고등보통학교 2학년 학생인 김해인과 구자훈 등 7명이 항일결사 ‘명랑(明朗)클럽’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사용금지, 신사참배거부, 악질일인교유배척 등의 활동을 하는 한편, 무궁화식수장려 및 미신타파 등 계몽활동을 펴면서 민족의식 고양에 힘을 쏟았다. 그런데 이들이 졸업한 후 이 모임의 회원이었던 천영관(千永寬)이 1942년 6월경에 일제의 패망을 언급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명랑클럽의 조직이 발각됨에 따라 구자훈도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다음으로 1930년대에 전개된 농민운동은 충남지역에서 소작쟁의, 농민야학, 적색농조운동 등이 있었다. 1920년부터 전개된 충남의 소작쟁의의 건수가 전국 13개도의 평균치인 7.7%를 훨씬 상회하였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파악되지 않지만, 1920년대 공주에서도 농민단체를 조직하여 다양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충남지역의 노동운동은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의 출범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공주에서는 1926년과 1927년에 공주노동회와 공주노동협성회를 창립하였고 각 면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공주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운동과 농민운동에 종사했던 안병두(安秉斗, 1910.7~1950.9)라는 인물이 있었다. 1931년 10월 공주군 우성면 방흥리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는데, 그는 박명렬(朴命烈)과 함께 소작농을 지도하여 쟁의를 이끌었다. 이와 같이 소작쟁의 등 공주지역 농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안병두는 그해 12월 이학근(李學根) 등과 함께 비합법적인 농민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는 일제와 맞서기 위해서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불어 넣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래서 안병두는 농민조합원들에게 연설을 통해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깨치는데 힘을 쏟았다. 한편, 그는 공주소년동맹(公州少年同盟) 집행위원장으로 활발하게 대중운동을 펼치던 중 공주고등보통학교 학생 김순태(金淳泰)·노수남(盧壽男)·유석순(兪錫淳) 등과 반전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후 이들은 1932년 3월 5일 공주 영명학교를 비롯한 시내에 반전격물을 뿌리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다음으로 여성들의 항일운동이다. 대부분 3.1운동 때 투옥된 지사 및 그 가족들의 후원과 임정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애국부인회가 조직된 이후 그와 유사한 여성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에 공주에서도 공주부인회가 조직되었다. 또한 종교여성단체로 공주 여자기독교청년회(1925), 공주불교부인아리다라회(1925) 등도 조직되었다.

신간회운동도 빠질 수 없다. 신간회에서는 민족의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충남에서는 홍성, 예산, 당진, 서산, 공주, 부여, 천안 지회가 설립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운동은 교육, 언론, 종교, 국학, 예술 등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충남지역에서의 교육문화운동은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교육운동의 경우 교사의 신분으로 민족사상을 고취한 경우가 확인되는데, 공주의 장기국민학교 교사 유제경(柳濟敬) 정도가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일제의 식민화 교육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1922년 말 서울에 민립대학기성회가 조직되었다. 각 지방별로 발기인 모임을 결성하였는데 이때 충남 지역에서도 시군별로 지방부가 조직되어 기금을 모금하였다. 공주에서는 유정현(柳靖鉉)을 대표로 하여 조직되었다. 또한 논산 출신인 신현구(申鉉九, 1882~1930)는 공주 영명학교를 설립한 미국 선교사 윌리엄즈(禹利岩)를 만나면서 기독교에 입문하여 공주 영명학교에서 신학문을 익혔다. 영명학교를 마친 뒤 그는 공주 계룡에서 사립 원명학교를 세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기독교 전도사업에 힘을 쏟았다. 20세 무렵 신현구는 모교인 영명학교에 한문 교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이규갑 등과 교유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워 나갔다. 또한 비밀결사 그룹인 공주그룹은 1941년 11월경 일본 도쿄(東京)에서 조직된 ‘우리조선독립그룹’의 국내 연계조직으로 결성된 비밀결사였다. 공주 출신인 현창석(玄昌碩)은 일본 센슈대학(傳修大學) 유학 중 채용석(蔡用錫)·정종락(鄭鍾樂)·김원식(金源植) 등과 일제 패망을 예견하고 국제정세를 이용해 독립을 달성하고자 ‘우리조선독립그룹’을 결성했다. 현창석은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일본과 국내가 연계해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1941년 6월 귀국해 고향인 공주에서 노섭, 현창석, 임현도, 정낙진 등과 함께 ‘우리조선

독립그룹’의 국내연계조직으로 공주그룹을 결성하였다. 공주그룹은 도쿄에서 미국의 공습을 틈타 주요시설의 방화, 철도 및 수도파괴 등 재일조선인들이 무장봉기를 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동조해 함께 봉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던 중 일본에서 현창석이 체포되면서 공주그룹의 전모가 드러났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충남의 독립운동가』(전2권, 2011년 발간)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독립유공자는 전체 1,017명이다. 이중 공주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는 63명으로 충남 전체에서 6%의 비율에 해당된다. 63명의 활동 내역은 의병이 8명, 애국계몽운동이 2명, 3.1운동이 31명, 국내항일운동이 8명, 학생운동 4명, 만주방면 4명, 일본방면 3명, 임시정부 2명, 광복군 1명이다. 

심산 김창숙 선생께



최재성
성균관대 초빙교수

효창 공원에 / 스산한 바람 불고 / 처절한 비 내리는데 / 통곡하며 부르노라 / 일곱 선열의 영혼을.
땅속에 묻힌 말라버린 뼈 / 일찍이 무슨 죄를 짓기에 / 멋대로 공병대의 / 깡이 아래 파헤쳐지는가.

저 남산 / 저 탑골 공원을 보라 / 하늘을 찌르는 동상이 / 사람의 땀을 빼앗는구나.
독재의 공과 덕이 / 지금은 이렇듯 높을지나 / 두고 보시오 / 桑田과 碧海 / 일순간에 뒤집힐 것을.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 무렵 이승만 정권 지시에 따라 효창원에 있던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일곱 열사 묘를 이장하고 운동장을 개설하기 위해 공병대가 공사에 착수하자 선생께서 이를 저지하고, 신문에 게재하신 시입니다. 독립 운동가들을 홀대하고 독재자를 숭배하던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독재자에게 경고를 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문은 7언 율시 한시로서 1956년 6월 9일자 동아일보에서 볼 수 있음)

선생께서 하신 ‘상전과 벽해 일순간에 뒤집힐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은 만 4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1960년 4월 독재자 이승만이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국민들



▲ 김창숙 선생 동상(성균관대)

의 거센 저항을 맞아 권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난 시민들은 탑골 공원과 남산에 있던 이승만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강산이 다섯 번 변할만한 세월이 흐른 뒤에 또 한 번 ‘상전벽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1년, 남산 중턱에 황금빛을 뽐내는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러 올해에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보는 한 무리 사람들이 이승만을 칭송하는 내용을 서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정부 검정을 통과하여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선생께서 살아 계셔서 이것을 보셨다면,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심산 선생의 생애를 두고 흔히 ‘반외세 반독재’로 점철돼 있다고들 합니다. 1879년 경북 성주 땅에서 동강 김우옹의 13대 종손으로 태어나신 선생은 ‘국권수호운동’에 참가하여 반외세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파기와 을사오적 처단을 주장하는 상소, 1909년 ‘합방청원’ 운동을 벌이던 일진회를 성토했는 건의서 작성 등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곧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선생께서는 이제 민족해방 투쟁에 투신하게 됩니다. 1919년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유림 130여명의 서명을 받은 ‘파리 장서’ 주도(‘제1차 유림단 사건’), 국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운동을 벌여 나석주 의사 의거 지원(‘제2차 유림단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선생께서는 1927년 상해 공동조계 병원에서 체포되어 국내(대구)로 압송되었고, 고문으로 앓은뱅이(벽옹)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 치안유지법·폭발물 취급령 위반’이란 혐의로 1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병세 악화로 인한 임시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해방을 맞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항일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해방을 맞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38선 이남과 이북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 김창숙 선생 재판 기사

이제부터 선생께서는 반독재 운동에 나서시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51년 대통령 실정과 독재를 비판하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 경고문’ 발표였습니다. 이 일로 선생께서는 부산형무소에 구금되기도 하셨습니다. 1952년 6월에는 ‘반독재 호헌 구국선언 대회’를 주도 하셨다가 40일간 구금되었습니다(‘국제구락부 사건’).

‘사사오입 개헌’과 1956년 제3대 정·부통령선거를 통해 이승만은 3선 취임을 합니다. 이에 선생께서는 ‘대통령 삼선취임에 일언을 진함’이란 글을 발표하여 부정 선거를 비판합니다. “각하의 행정 전후 8년 동안에 많은 실덕(失德)이 있었으나 과거는 모두 덮어두기로 하고 만근(晩近) 선거를 통하여 드러난 각하의 실덕은 천하인의 이목을 엄폐지 못할 사실입니다. 5·15 선거를 비롯하여 8·8 및 8·13선거는 이것을 선거망국이라 단언합니다.”라고 하시고 각료 중 간신배 축출, 자유당 해체, 부정선거 무효화 및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1957년에는 시 〈경무대에 보낸다〉를 지어 최남선 죽음에 이승만이 조사를 지어 기린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정부 구성 이전에 친일파 숙청을 주장하셨던 선생께서는 ‘친일의 거두’ 최남선을 용납할 수 없었는데, 그의 노제에 대통령이 조사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9년 1월 8일에는, 전 해 있었던 ‘보안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반독재 민권쟁취 구국 운동을 위한 전국민 총궐기 연합체 구성’을 제창하셨습니다. 이어 1월 16일에는 ‘보안법은 이 민족을 억압하는 망국법이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경찰국이며, 따라서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하야하라.’라는 내용의 보안법 반대 및 대통령 하야 성명서와 자유당 성토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960년 이승만 정부는 4월 혁명을 맞아 붕괴되었습니다. 이승만 자신은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독재의 공과 덕’이 일순간에 뒤집히고, ‘하늘을 찌르는 동상’이 땅바닥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반독재 투쟁으로 일관하신 선생께서 이승만 독재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선생을 패배자로 만들고, 이승만을 승리자로 기록하려는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숨죽여 있던 이승만 찬가가 다시 이 땅을 가득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현실 권력을 빌려 강력한 조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독재의 공과 덕’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 1950년대 김창숙 선생의 모습

선생께서 떠나신 지 50여 년, 이 땅에는 다시 분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일흔

해 가까운 옛적 한반도에는 극심한 좌우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북 분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남쪽 땅마저 두 동강이 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의 배경에서 공통적인 일은 ‘분열의 아이콘’이란 평가를 받는 이승만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보편 가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재자 이승만 수법을 본받은 무리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정권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자신에 반대하는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고, 3·15 부정 선거에 저항하여 일어난 국민들을 향해 공산당 사주를 받은 것이라 호도했던 것은 선생께서도 생전에 보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들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좌익 빨갱이’, ‘중북’으로 몰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국민을 상대로 편 가르기를 강요하는 일이고,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인 ‘국론 분열’ 행위입니다. 아마 선생께서 1950년대 이승만 독재에 반대하여 벌이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좌빨’과 ‘중북’ 딱지를 붙이려 들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켰던 이승만을 두고서 단지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존경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이제 10대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아버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물을 이토록 강제로 ‘아버지’로 부르도록 만들까요. 아마 휴전선 이북 땅이 아니면 그 유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해 온 저는 이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일시적 퇴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진보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논개 33인의 꽃 ‘김향화’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흑한의 눈보라 속하얀 소복 입고 고종의 승하를 슬퍼하며
대한문 앞 엮드려 통곡하던 이들

꽃반지 끼고 가야금 줄에 논다 해도 말할 이 없는
노래하는 꽃 스무 살 순이 아씨

읍내에 불꽃처럼 번진 만세의 물결
눈 감지 아니하고 앞장선 여인이여
춤추고 술 따르던 동료 기생 불러 모아
떨치고 일어난 기백

썩지 않은 돌 비석에 줄줄이
이름 석 자 새겨주는 이 없어도

수원 기생 서른세 명
만고에 자랑스러운 만세운동 앞장섰네

김향화 서도흥 이금희 손산홍 신정희
오산호주 손유색 이추월 김연옥 김명월
한연향 정월색 이산옥 김명화 소매홍
박능파 윤연화 김앵무 이일점홍 홍죽엽

김금홍 정가패 박화연 박연심
황채옥 문통월 박금란 오채경
김향란 임산월 최진옥 박도화 김채희

오! 그대들 수원의 논개여!
독립의 화신이여!

김향화(金香花, 1897. 7. 16 ~ 미상)

행화(杏花), 순이(順伊)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김향화는 3월 29일 경기 수원군 자혜병원 앞에서 기생 3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수원 기생조합 출신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자혜병원으로 가던 중 동료와 함께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주도하여 의기(義妓)로서 기상을 높였다. 서슬 퍼런 일제 강점기에 경찰서 앞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했다는 것은 강심장이 아니고는 행동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2009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이 윤 옥 시인

《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으로 왜곡된 역사를 시를 통해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시로 승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시집으로는『서간도에 들꽃 피다』1·2·3, 시화집『나는 여성독립운동가다』,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41heroiner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사쿠라 불나방』의 다수. (누리편지:59yoon@hanmail.net)

사진으로 보는 중국답사



1. 가흥의 임시정부 인사 체류 장소
2. 고려사 가는 길
3. 가흥의 백범 피신처. 당시 백범이 배 타던 장소를 재현해 놓았다
4. 답사단 단장을 맡았던 문찬웅군

5



6



7



5. 답사단 발대식 기념사진

6. 백범이 배 타던 곳

7. 상해 송칭링 능원에서 설명하시는 서중석 교수님

8



9



10



11



8. 상해 임시정부청사안에서 영상물 관람

9. 상해임시정부청사 입구

10. 서중석 교수님의 강의 모습

11. 중경임시정부청사에서 영상물을 보고 있는 답사단

12



12. 중경임시정부청사

13. 진강 임시정부사료관으로 가는 골목길

14. 중경임시정부청사에서 기념사진

13



14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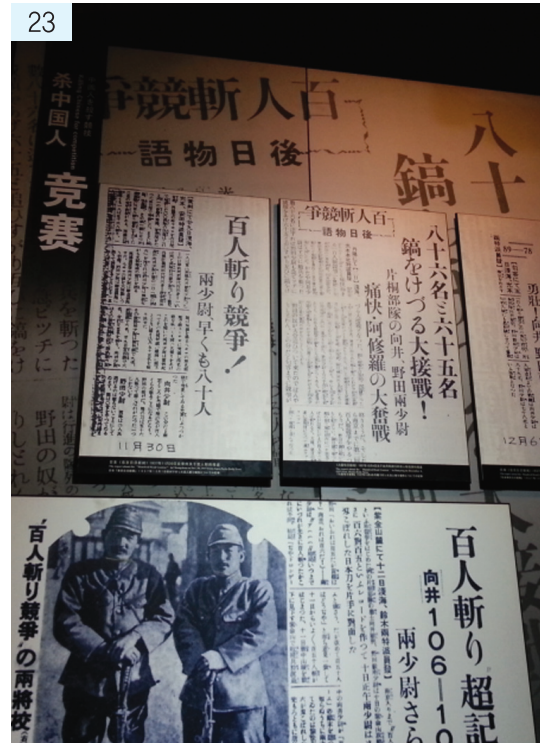
15. 진강 임시정부사료관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16. 철거되고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 자리

17. 진강 임시정부사료관으로 가는 학생들



- 18. 진강 임시정부 사료 진열관
- 1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발자취인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 20. 한국광복군의 군복
- 21. 목원소학교. 이곳에서 김구 선생은 항일을 강조하며, '조선 망국의 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현재는 중국의 학교로 남아있다.



- 22.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걸려있는 그림. 1937년 12월, 일본인들은 약 2개월에 걸쳐 난징에 있던 중국인 약 30만명을 학살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다.
- 23. 난징대학살 기념관에 전시된 기사. 위 기사는 일본인 군인 둘이 누가 중국인을 많이 죽이나 내기를 한 내용이다.
- 24. 충칭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실

25



26



27



- 25. 항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윤봉길의사 의 거 이후, 일본군의 표적이 된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이곳에서 임정청사를 세웠다.
- 26. 충칭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부
- 27. 김구선생의 피난처 가흥. 점차 거세지는 일본의 위협을 피해 김구선생과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에 숨어 지내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1

본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독립정신 답사단>과 별개로 공주교육대학교 주최, 본회 주관 형태의 답사를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라는 주제로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4박 5일간 답사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문 찬 응
공주교대 사회교육과 학생



2014년 2월 8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모이게 되었다.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공항에 도착해야 했기에 새벽 3시에 전주에서 출발하여 몸은 피곤하였지만, 마음속은 독립운동을 위해 애쓰신 선조들의 발자취를 탐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하였다. 눈이 와서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게 중국 상해에 도착하였지만 입국 심사 등이 일찍 끝나게 되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인천과 달리 상해는 비나 눈이 오지 않아 답사를 하기에 괜찮은 날씨였다.

상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하였던 장소는 만국공묘였다. 만국공묘는 1920~1930년대 상해의 외국인 공동묘지로 조성



된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우리나라 독립 운동가들의 묘소도 있었다. 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선생의 묘소를 보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서중석 교수님께서 여기에 모셔진 독립 운동가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국 공묘에는 14기의 한국인의 묘가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박은식 선생 묘소 등은 한국에 봉환되었지만, 7기의 묘가 한국으로 봉환되지 못하였다. 나머지 묘소들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던 만국공묘 방문이었다.

그다음으로 방문하였던 장소는 상해박물관이었다. 상해박물관에는 중국의 각 시대별 다양한 문화재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중국의 진귀한 옥(玉)과 화려한 문양의 도자기들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상해박물관에 입장할 때는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물론 문화재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1일차 일정으로 마지막으로 들렀던 장소는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였다. 상해임시정부청사는 상해 중심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임시정부를 마주한 길 건너편은 명품 매장과 해외 유명 브랜드 매장으로 가득하였지만, 임시정부청사는 시간을 거슬러 간 듯 매우 허름하였다. 그러나 허름하다는 것 자체가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청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임시정부청사는 골목길 안쪽에 있었는데 영상실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임시정부청사를 둘러보는 순서로 관람이 진행되었다. 임시정부 청사는 매우 좁았고, 계단도 가팔랐다.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였다는 걸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시렸다. 더불어 이러한 악조건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의 선조들이 존경스러웠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는데 향신료 냄새 때문에 많은 음식들이 먹기에 쉽지 않았다. 이러한 입맛에 맞지 않는 중국 음식들을 먹으며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만 일하셨을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팠다. 저녁 식사 후 호텔에 들어와 우리 학교 답사단의 발대식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학생단장으로서 발대식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진행은 처음이었기에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순서대로 큰 문제없이 국민의례와 선서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서중석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서중석 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답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는 만큼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비록, 다음날 일정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1930년대 이후의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을 수 없었지만, 임시정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둘째날 일정은 기차를 타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상해 홍교역에 도착하여 고속열차를 타고 진강으로 향하였다. 예정 시간보다 기차가 늦게 출발하고, 기차가 도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역에서 오랫동안 정차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게 진강에 도착하였다. 진강에서 들른 독립운동 사적지는 진강 임시정부 사료관이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1930년대 임정 이동시기에 2년간 진강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김구 선생이 중국인들에게 수차례 강연하였던 소학교 자리에 세운 전시관이었다. 시골 마을 골목길 안쪽에 작은 소학교 터에 전시관이 세워져 있었는데, 많이 외진 곳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답사단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한국 관광객들은 찾아가기 힘들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진강을 뒤로하고 우리는 남경으로 이동하여 남경대학에 들렀다. 남경대학은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던 한국인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였는데 그 당시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고 현대식 대학 건물만 있어서 아쉬웠다. 남경대학을 들른 후 남경대학살기념관에 방문하게 되었다. 남경대학살기념관은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몸을 바쳤던 시기에 남경을 점령한 일본인들이 중국인들을 학살하였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전시관이었다. 비록 다른 나라의 사건이었지만 전시관의 유물이나 영상들을 보며 1930년대 중국인들의 비참했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남경대학살기념관을 뒤로하고 들른 곳은 호가화원이었다. 이곳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주했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주거지로 변해 그 당시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물론 해외에 있는 사적지이기에 보존되기 힘들다는 점은 알지만, 이와 같은 사적지들이 복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답사였다.

남경에서의 답사를 마친 후 항주로 이동하였다. 항주로 이동하면서 답사단 단장으로서 조별발표와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나 역시 발표자의 일원으로서 조별발표를 하였는데, 발표할 때 당황하고 실수를 많이 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이틀째 잠을 많이 자지 못하여 몸은 피곤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애쓰신 우리의 선조들이 고생하신 것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진행을 하였다. 발표와 퀴즈는 무사히 끝났지만, 아침부터 기차가 연착되고 중국 고속도로의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하여 저녁 일정인 송성가무쇼 관람이 취소되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셋 째날 아침, 항주에는 눈이 쌓여 차는 많이 막혔지만 도시의 풍경은 매우 예뻐다. 이러한 분위기가 답사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며 첫 답사지로 항주임시정부청사에 방문



하였다. 항주임시정부청사는 상해임시정부청사보다 넓었지만, 건물은 전체적으로 정부청사답지 않게 너무 초라하였다. 이러한 곳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셨을 선조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항주임시정부청사 답사를 마치고, 서호와 고려사를 구경하였다. 눈내린 날의 서호와 고려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특히 서호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에도 관리가 잘 되어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풍경을 지닌 곳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항주 답사를 마치고 가흥으로 향하였다. 가흥에서는 김구피난처와 임시정부요인거주지를 방문하였다. 김구피난처와 임시정부거주지 모두 마을 주택가 안에 있었는데, 일본에게 검거되지 않기 위하여 도시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주택가에 몰래 숨어서 독립운동을 위해 몸 바쳤을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팠다. 가흥 답사는 이것으로 마쳤고, 가흥에서 상해 가는 길에 답사 단장으로서 주제 발표와 퀴즈를 진행하였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니느라 지루할 법도 하였지만, 학생들이 진행에 잘 따라줘서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다. 상해에 도착하여 황포강 유람선을 타며 상해 도심부를 구경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녔던 중국의 시골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국제적인 경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람선 관람이었다. 황포강 유람선 관람 후 상해 서커스 구경을 끝으로 셋째 날 일정은 끝났다.

넷째 날 아침, 상해 포동공항을 떠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마지막 정착지였던 중경으로 향하였다. 상해에서 중경까지 비행시간은 인천에서 상해로 가는 비행시간보다 길었는데, 비행기를 타며 이와 같은 엄청난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하셨을 선조들이 다시금 생각났다. 중경에 도착해서는 먼저 인민대례당과 삼협박물관에 방문하였다. 인민대례당은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구경만 하였지만 1950년대에 지어진 건물답지 않게 매우 웅장하였다. 삼협박물관은 중국이 장강을 개발하면서 수몰된 지역의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었다. 상해박물관과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장강 개발 과정 동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들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삼협박물관을 구경한 뒤 중경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에 방문하였다. 이전에 방문하였던 상해임시정부청사, 항주임시정부청사와 비교하면 매우 큰 규모였다. 하지만 건물들을 세세히 어 보니 행정부처라고 있다지만 매우 작은 규모였고, 김구 주석께서 집무실로 사용하셨던 방 역시 매우 작아서 일국의 대표자가 지내기에는 매우 초라하였다. 더욱이 허름한 주거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께서 매우 고생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시정부청사 방문 후 중경 시내를 한참 걸어 광복군 사령부옛터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한국광복군이 차지하는 역사적인 비중과



는 걸맞지 않게 중경 시내 한복판에 그 터만 식당으로 바뀌어 초라하게 남아 있어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홍애동 옛거리를 구경한 후 중경 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다섯째 날 아침,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호텔에서 나와 중경 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에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답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분들이 해외에서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이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나 역시도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유적지와 버스 안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역사적인 사실을 자세히 전달해주신 서중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학생단장으로서 발대식과 발표 진행, 퀴즈와 같은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연구실장님, 사무처장님, 학교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저의 진행에 잘 따라준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느꼈던 답사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독립 운동가들의 뜻을 생각하며

박 석 우
공주교대 체육교육과 학생

2014년 2월 8일~ 2월 12일, 4박 5일 동안 나는 우리 학교에서 주최하는 중국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떠났다. 처음에 신청할 때, 이 답사활동을 그냥 단순한 해외연수 활동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사전 OT를 하고 난 후, 답사활동에 담긴 의미를 알고 단장님으로 서중석 교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 가졌던 안일한 마음을 고치기로 마음 먹었다.

답사를 떠나기 전에 세 가지 공부를 했다. 하나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쟁에 관한 조별과

제 준비였고 다른 하나는 내가 중국에 가서 직접 방문할 지역의 여러 유적지에 대한 사전 조사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공부였다. 중국이 어떠한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답사를 더 풍부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좋고 보람찬 여행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답사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배워



▲ 상해 임시정부 청사



▲ 항주 임시정부 청사

갈 수 있었다. 하나는 중국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번 답사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역사들이다. (이 역사들을 아는 데 서중석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먼저 G2로서의 중국의 위용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답사가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다. 방중 전에는 중국에 대해 ‘더럽다’, ‘무질서하다’, ‘환경오염이 심하다’ 이러한 편견들만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상해나 중경과 같은 중국의 직할시와 항주, 남경 등의 도시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층빌딩과 많은 사람들, 도로에 굴러가는 수많은 외제차들 그리고 예상외의 화려함을 통해 중국의 위용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중국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두 번째로, 일제 치하의 식민통치의 잔혹성이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쟁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말 중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핵심 주장으로 한다. 이와 함께 같이 제기 되는 주장이 일제의 식민통치가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우리민족에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 답사를 통해 이러한 생각과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첫날 들었던 서중석 교수님 강의 때, 교수님께서 일제는 민주주의가 정책된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를 통치했다고 하셨다. 한반도에 2개의 사단이 주둔하고, 10년대의 헌병 통치, 20년대 보통경찰 통치, 30년대 이후의 각종 동원령등 일제는 철저히 대한민국을 강압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통치했다. 일제의 식민통치의 잔혹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난징대도살기념관’ 방문이었다. 30여일에 약 300,000명을 죽인 그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면서, ‘직접 식민통치 한 국가도 아닌 중국에서 이러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35년을 식민통치한 한국에서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이 더 하면 더했지, 덜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현재 역사적 망언을 일삼으며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극우세력을 보며, 일제의 식민통치의 잔혹성은 더 배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 상해 유람선 - 서중석 교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여러 독립 운동가들의 뜻을 느낄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큰 뜻을 품고 35년 동안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했다. 답사 전에 역사시간에 독립 운동을 배울 때,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막연하게 대단하다고만 생각했다. ‘와 친일파들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또는 ‘나도 뭐 독립운동 했겠지.’ 이런 식의 단편적인 생각들만 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해외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답사 지역에 있는 여러 임시정부 청사와 임시정부 유적지(상해, 항주, 진강, 가흥, 난징)를 방문했을 때,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던 환경의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좁은 공간, 생활하기 불편한 환경, 부족한 자금 상황 등 일반인이라면 금방 독립운동을 포기할 것 같았던 상황에서 우리 임시정부 인사들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 이 때, 나는 ‘과연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질문에 서중석 교수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다. 그것은 바로 ‘뜻을 품은 인간’에 있었다. 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힘의 원천이 단지 조국의 독립이라는 목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품은, 다시 말



▲ 충칭 임시정부 청사

주셨던 서중석 교수님, 박덕진 실장님, 이일선 처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 외에 공주교대 관계자님들과 김원수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해준 답사단원 전체에게 뜻 깊고 의미있고 재미있는 답사였노라고 말하고 싶다. 

하면 뜻을 품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정신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성공하는 이는 바로 뜻을 품은 사람이다. 많은 독립 운동가들도 바로 뜻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조국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큰 뜻을 품고 나아간 여러 사람들 덕분에 세계 유일의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불굴의 독립 운동을 수행해서 조국의 광복을 이뤄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답사에 대한 글을 끝마치며 이번 답사에 도움을



▲ 한국 광복군 창단식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그 곳에서 독립의 숨결을 느끼다

이 중 관
공주교대 체육교육과 학생

— 뜻밖에 찾아온 답사단 여행

항상 똑같은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던 가을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하리라 맘을 먹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저는 학교 공지에 뜬 중국 답사단에 관한 공지를 보게 되었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답사단에 지원하였습니다. 답사단에 선발이 되었고 1월 말에 이뤄진 OT를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여행을 간다고 지원한 답사였는데, 빠듯한 일정에 중국의 상하이로 제외하고는 생소한 도시를 답사한다 길래 약간은 당황을 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간은 흘러 답사 첫 날의 아침이 밝았고 새벽부터 일어나 버스에 몸을 싣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상하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 때부터 아주 뜻 깊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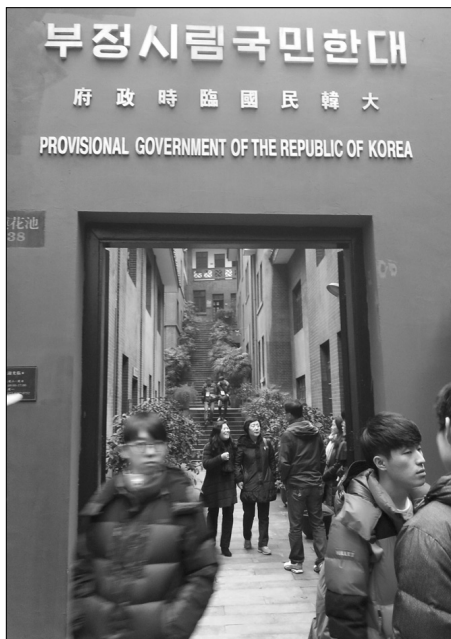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

몇 시간 뒤 저희는 상하이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희 답사단은 만국공묘, 상해박물관, 상해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상해박물관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은나라 때부터 시작된 중국의 역사를 상해박물관에서 한 눈에 개관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장소부터였습니다. 다음으로 만국공묘를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현재 쑨원의 처인 쑹칭링의 묘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비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TV에서 자주 보이던 풍경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곳 상해임시정부청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1919년 3.1일 그 숭고하고 가슴 아픈 3.1운동이 있은 후 같은 해 4월 11일 3.1운동의 뜻을 이어받아 상해임시정부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즉 3.1운동이 상해임시정부를 존재하게 한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상해임시정부는 이후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하는 연도인 1932년 총 13년간 지속된 임시정부로써는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정부였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곳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건물 내부를 둘러볼 때 까지 심지어는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그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많은 것을 배우고 나서 보니 그 곳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답사를 가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은 중국의 고속열차를 타고 진강시로 이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정의 발자취와는 조금 다르나 이 진강 또한 대한민국임정의 독립운동가들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거사 이후 대한민국임정의 독립운동가들은 상해에서 항주로 항주에서 남경으로 수없이 많이 일본군을 피해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임정의 세 번지 거처였던 남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남경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중국에게도 아주 역사 깊고 아픈 곳임을 이번 답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곳 남경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과 전쟁(중일전쟁, 1937.7) 당시 수많은 중국인들을 대량학살을 한 곳이었습니다. 약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불과 2개월 만에 일본인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난징대학살) 이 사실을 남경의 '남경 대학살 기념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극악 무도한 일본군들 밑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곳곳하게 독립운동을 해나갔습니다. 상해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엄습해오는 일본군에 대한



공포 속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 하나로 진정 그 하나로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냈을 독립열사들이 생각났습니다. 독립열사들 생각에 웬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이 남경에서 머물던 호가화원은 재개발되어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대중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차차 이번 답사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셋 째날 답사한 곳은 항주였습니다. 이 곳은 대한민국임정이 상해에서 처음으로 이동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또한 시설이 낙후되고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새삼 다시 독립운동가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곳의 호수인 서호를 둘러보고 유람선도 타며 우리나라 불교와 천교를 맺은 고려사도 방문하며 관광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답사단은 가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처음에 이곳 가흥은 약간 생소하고 왜가는지 의문이 드는 곳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단장님인 서중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뿐만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일본군의 눈을 피해 숨어 살던 곳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 독립열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 인사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사의 거사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의 용감하고 적극적인 태도에 놀라게 됩니다. 이 거사 이후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게 됩니다. 이 가흥에서 또한 국민당원인 저보성의 도움으로 저보성 자신의 수양아들인 진동생의 집에서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가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저희는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충청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역사상 가장 막강한 세력을 자랑했던 시기의 정부입니다. 김구선생님을 중심으로한 임시정부는 체계적인 부서를 가지고 있었고 광복군이라는 군대 또한 가지고 있을 만

큼 정상적인 정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대한민국의 정부다운 체계를 가진 충청임시정부는 드디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됩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 선전 포고를 하노라!’ 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한국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전쟁에 참가시키는 한편 미국의 OSS특수부대와 함께 드디어 한국 서울의 진공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이 진공 작전은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국내 진입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두고 김구 선생님은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단의 아픔과 6.25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르게 됩니다. 정말 만약에 대한민국임정의 광복군이 일본군과 싸워 이겨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아왔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북과 남으로 분단되었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 한 켠이 먼가 쓰러웁니다. 억울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사를 마치며

이를 마지막으로 저희의 답사는 마무리 지어집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안했던 이번 답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과거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투쟁했을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그 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이고 저 또한 이렇게 유복하게 생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답사를 별 기대하지 않고 관광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피흘렸던 독립운동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2014년 2/8~2/12까지

〈중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취를 따라서

이 재 혁
공주교대 체육교육과 학생

답사의 의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이 답사가 첫 해외여행인 나에게 있어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세계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느끼고 싶은 것이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이번 답사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무작정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답사 단원들이 모여 모든 출국준비를 마치고, 임시정부의 첫 번째 자취가 남아 있는 상해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뽁뽁한 스케줄 덕분에, 중국의 공기를 음미할 시간도 없이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관광버스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만국공묘]였다. 만국공묘는 본래 상해 외국인 묘지이다. 그런데,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손문’의 부인인 ‘송경령’ 여사의 시신이 안치된 뒤로는 ‘송경령 능원’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묘로는 ‘박은식’, ‘신규식’ 선생님의 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분들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당시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라고 한다. 그 분들의 묘를 보면서 든 생각은, 묘를 대신하던 석판의 초라함을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송경령’ 여사를 기념하는 큰 건물에 비교하니 웬지 모르게 서운하고 아쉬웠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상해박물관을 거쳐 상해 임시정부로 향했다. 임시정부는 상해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임시정부가 상해 시내에 위치하고 있던 이유는 그 시기에 이 곳이 바로 프랑스의 조계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감시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곳은 3·1운동 이후, 분산되어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집합시켜 만든 임시정부로서 교육이나 언론활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적

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광복을 위해 힘쓴 첫 번째 장소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과 달리, 상해 임시정부는 그 규모가 일반 가정집과 비슷할 정도로 작고 열악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망국의 설움을 딛고 광복을 위해 힘쓰셨을 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둘째 날은 진강과 남경, 그리고 항주 등 갈 곳이 많아 기차를 타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났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임시정부는 노선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는다. ‘김구’ 선생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의열 투쟁을 벌인다. 훗날, 중국의 ‘장 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홍콩우 공원 의거를 두고 ‘중국의 백만 대군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이 이뤄냈다.’라고 칭송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대륙을 이전하며 재기를 모색했다. 진강은 임시정부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내었던 곳이다. 우리 답사단은 진강 임시정부에서 임시 정부의 활동과 그 어려움에 대한 귀중한 설명을 듣고, 난징으로 이동했다. 난징에서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들렸다. 난징 대학살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937년, 일제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난징을 공격, 대학살을 벌인 사건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우익 정치인, 단체가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여, 세계의 비난을 받았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은 마치 일본의 그러한 태도를 반박하는 변호사 같은 건물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행한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의 뒤를 되짚어 보자는 여럿의 목소리가 닿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광기를 모두 모아놓은 듯 잔인하고 무서웠다. 그리고 일제가 내뿜는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 힘쓴 우리의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신 또한 숭고하게 느껴졌다.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을 하고 우리 버스는 달리고 달렸지만 끝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항주 일정을 다음 날로 미뤘다. 그 날은 특별히 입에 맞지 않는 중국 음식들이 아니라 한국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다른 나라에서 먹는 삼겹살이라 더욱 각별하고 맛있었다.

그 다음 날은 항주 임시정부 청사를 들렸다. 상해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항주 임시정부는 불편하고 협소한 건물 안에 위치해있었다. 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볼 수 있었던 그들의 험난하고 불편한 길에서 나는 이 분들이 가졌었던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조국 광복이 그들 개인의 편의나 안위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자



기 자신을 내버릴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였을까?,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다. 이 질문들에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들도 있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한 질문들을 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다음 지역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신을 보호 받았던 가흥 피난처였다. 가흥에서는 여럿 중국인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한다. 정말로 고마운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도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온 중국인들에 대해 반가운 시선이 아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다. 막상 내가 중국에 와서 그러한 시선들을 느껴보니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일차원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번 답사 같은 프로그램들이 널리 실행되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념들을 서서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저녁에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죽기 전에 한 번 쯤은 꼭 봐야 할 멋진 풍경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위치했었던 중경에서 보냈다. 중경이란 도시 하나의 크기가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만 제외한 것만 하다니, 새삼 중국의 크기와 규모에 놀라웠다. 중경시기의 임시정부는 다른 임시정부 청사들과는 달리 그 규모가 컸다. 그 시기의 임시정부는 광복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여, 전쟁에 대비해 한국광복군을 설립하고, 광복 이후의 조국의 재건을 위해 대비하는 활동을 했다고 한다. 임시정부 청사에서 관련된 영상물을 시청하고, 여행을 끝마치는 정리를 단장님이신 서중석 교수님이 해주셨다. 한 가지도 빼놓을 것 없이 좋은 말씀들이었다. 그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답사에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셔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귀중한 경험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의 답사는 사실상 끝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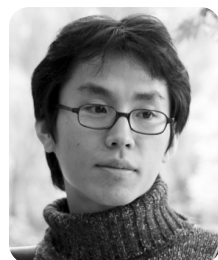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답사가 내 인생 앞에 찾아온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로, 세계는 넓고 그와 비례하게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귀중하고 둘째로는, 최근 동북공정, 교학사의 교과서, 일본의 독도 영



유권 주장 등 역사의 잘못된 해석을 통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역을 함을 느끼고,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진정 제대로 된 역사 지식을 알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귀중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귀중했다. 모쪼록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많아져 다른 학생들도 귀중한 경험을 얻어 갔으면 좋겠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속의 세계



이 두 희
자유기고가

개봉도 전에 영화의 배급 과정에서부터 화제가 되었던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딸의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법정싸움을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에서는 그 이름을 바꿔 쓰고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대기업이 한국 사회 최대의 재벌 삼성이라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영화는 2007년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2011년 행정재판에서 부분 승소를 얻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한 가족이 맞서기에는 너무나 무모해 보였던 싸움을 담아내고 있었다.

영화는 황유미씨가 취업 면접을 보고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공장 기숙사로 떠나며 시작한다. 그리고 백혈병 진단을 받고 돌아온 딸을 돌보는 가족 앞에 위로금으로 회유하며 사직을 종용하는 인사부 직원이 나타난다. 하지만 결국 황유미씨는 안타깝게 사망하고 아버지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사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소신 있는 노무사를 만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듯도 하지만, 자신의 가

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법정으로 배경을 옮기게 된다.

영화는 논쟁적인 주제만큼이나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었다. 반기업적인 민감한 소재인 탓에 투자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작 두레 방식으로 제작비를 모았고,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에서 개봉관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영화에 대한 언론사들의 취재 기사 관객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에 비해서도 많이 늦는 것에도 역시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차근차근 관객 수를 모아가고 있고, 찾기 어려운 극장을 애써 찾은 관객들이니만큼 영화에 대한 평들은 대부분 호의적이다. 여러 가지 사연을 이미 알고 있는 관객들이나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된 관객들이 서로 섞이면서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후기들이 나뉘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예산 극영화로서 부족한 영화적 형식을 지적하며 이야기의 평면적인 전개라든가 기술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혹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사실'을 다룬 영화이기에 중요한 것이고, 다른 영화들처럼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이중적인 태도의 후기도 있었다.

그러나 영화의 중요성과 재미와 같은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영화가 가진 소재의 절실함이나 현실 참여적 태도가 다른 평가의 기준보다 앞설 수 있거나, 혹은 그러한 의미를 기술적 완성도나 흥미적인 요소와는 꼭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앞의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중에서



물론 누구나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영화를 본다. 영화의 주인공에 감정이입을 하며 현실 감각을 잃는 일도 없고, 영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극장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영화 속의 세계를 가로막는 스크린의 벽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이 그렇게 우리는 스크린 뒤로 자신을 숨기며 영화가 투사하는 우리 앞의 세계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스탠리 카벨은 그의 저서 <눈에 보이는 세계 The World Viewed>에서 우리가 영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의 주관성이 동작하는 과정으로 서술한다. 영화는 특유의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방식으로 우리 앞에 하나의 세계를 재현한다. 하지만 그 세계에는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마치 카메라에 의해 기계적으로 촬영된 사진과 같이 스크린 위의 세계는 더욱 객관적인 것이 된다. 결국 '나'의 부재를 통해 우리가 가진 주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영화는 그렇게 실제로는 없는 세계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세계에 대해 품고 있는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 의심이란 우리가 타인의 존재와 타인의 생각을 아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카벨의 이와 같은 접근은 지적인 회의론의 관점에서 영화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영화를 영화로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영화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다시 가능한가를 타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역시 여타의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의 세계를 보여준다. 단지 영화의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만으로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를 예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또 하나의 약속>에서 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아버지의 절실함만큼이나 우리가 영화와 맺고 있는 관계,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 역시 절실할 수 있다. 같은 세계 속에 있는 나와 타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약속>과 같은 영화의 의미 역시도 반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좋은 영화를 선택해서는 보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일이며,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신뢰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약속>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온 과정에 의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서는 영화 속의 세계에 우리를 다시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가족의 힘을 빌리고 있다. 화목한 가정이나 향수어린 추억과 같은 가족의 미화에 그치지 않고, 삶에 있어서 동반자이자 때로는 서로에게 장애와 한계가 되기도 하는 가족의 구성은 나와 타인의 존재를 느끼는 가장 가까운 공통된 경험일 것이다. 더군다나 계층 간의 갈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구성원간의 불신이 커져감에 따라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역시 가족 밖에는 남지 않은 것은 아닐까.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를 떠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중에서



유 신

(한홍구 著, 한겨레출판사 刊, 472쪽)



2014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 유신! 《대한민국史》의 한홍구가 파헤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때 그 시절 이야기 한국 현대사의 고전 《대한민국史》의 저자 한홍구 교수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시절을 집중 조명한 《유신》을 펴냈다. 이번 책은 《한겨레》 토요판에 인기리 연재되었던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총 5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는 1970년대 초반의 상황을 중심으로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시작된 배경을, 2부는 1970년대에 벌어진 각종 사건(김대중 납치 사건, 민청학련, 인혁당 재건위, 장준하 의문사, 육영수 피격 사건 등)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독재의 그늘을 살펴본다.

3부는 유신시대 저항의 흐름을 조명한다. 특히

산업화의 역군이자 민주화의 밑알이었으나 그간 조명 받지 못한 여공들의 삶과 투쟁을 복원하고 있다. 4부에서는 병영국가화, 베트남전 파병, 새마을운동, 강남 개발, 중학교 입시 폐지와 고교 평준화 등 1970년대의 사회사를 펼쳐 보인다. 5부는 YH 사건에서부터 10·26까지 유신체제 몰락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단순히 지나간 역사로서의 유신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신체제를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질 것이다.

— 책속으로 —

박정희 정권 시절~ (이하중략)

최악의 공안조작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의문사위원회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조

사를 토대로,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490억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상당한 액수를 가집행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자가 과잉계산 되었다며 배상액수를 대폭 삭감하였고, 국가는 이를 토대로 배상금을 받은 유가족과 사건 관련자 77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251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혁당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_116쪽

20세기 후반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구진영 일각에서는 ‘산업화 세력’이란 말로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민주화도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 또 일부에서는 박정희를 산업화의 아버지,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떠받들기도 한다. 과연 이 땅의 민주화와 산업화는 누가 이룬 것일까. 민주화와 산업화 두 과제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면서도 주역으로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특히 ‘공순이’란 이름으로 차별과 멸시를 당하던 여성 노동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장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맨 밑바닥에서 산업화를 이룬 역군들이며, 그 강고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의 선봉자들이다. _165쪽

1979년 10월 18일 아침, 조간신문을 집어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부산에 18일 자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하도 ‘비상사태다’, ‘긴급조치다’, ‘위수령이다’ 등 특별조치를 남발했지만, ‘비상계엄’이란 말에는 각별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지난여름 YH 사건이 터진 뒤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고, 2주일 전인 10월 4일에는 급기야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는 소동까지 일어나는 등 정국은 계속 요동치고 있었지만, 비상계엄은 참으로 느닷없었다. 7년 전 10월 17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유신체제는 꼭 7년 후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종막을 향해 치달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를 전인 10월 16일 부산대학에서 일어난 작은 시위가 5만 군중이 참여하는 격렬한 가두시위로 발전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불러온 이 시위가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엄청난 태풍을 불러올 나비의 날갯짓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에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이 바로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이었다. _383~384쪽

김재규는 5·16과 유신이라는 박정희의 내란에 동행했으면서도 결국 이 내란을 종식시켰다. 김재규의 행동을 내란 목적 살인으로 몰고 간 것은 전두환의 내란이었다. 김재규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라는 말로 국민들에 대한 작별인사



를 대신했다. 김재규가 사형당한 것은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24일이었다. 김재규를 죽인 전두환은 광주 시민들의 항쟁마저 짓밟고 생명이 다한 것 같았던 유신체제를 간판만 바꿔 달아 신장개업했다. 전두환의 내란은 그렇게 완성되었고,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해보지 못했다. _412쪽

유신시대는 죽음의 시대였다. 최종길, 장준하와 인혁당 관련자들만 희생된 게 아니었다. 유신시대는 군대에서 1년에 근 1,500명이 죽던 시대였다. (...) 유신 전체로 치면 1개 사단이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전멸한 것이다. 아니, 전쟁 없이 죽었다기보다는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상대로 치른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다. (...) 둘째, 유신시대는 박정희 한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 만인의 자유가 희생된 시대였다. (...) 박정희는 유세 다니고 토론하는 것 하기 싫어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버렸다. 그 시절 박정희는 천황과도 같은 절대적인 지위를 꿈꿨다. 셋째, 유신시대는 표현의 자유가 끔찍하게 유린당한 시대였다. ‘유신 독재 타도하자’ 나 ‘유신헌법 철폐하라’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헌법을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청원)해도 영장 없이 체포해서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때려버리는 것이 유신체제였다. (...) 넷째, 유신시대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간 내면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된 시대였다. 친일파에서 광복군으로, 광복군에서 좌익이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 프락치로, 좌익 프락치에서 다시 우익으로 숨 가쁘게 변신한 박정희는 전향하지 않는 좌익수들의 꼴을 봐주지 못했다.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형기를 다 살았어도 전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옥살이를 시켰다. 형기를 마치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전향서를 쓰지 않으면 다시 잡아들여 보호감호관 이름으로 기약 없는 옥살이를 시켰다. _439~440쪽



종교와 식민지 근대

-한국 종교의 내면화 정치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윤해동, 이소마에 준이치 (역음), 책과 함께 刊, 432쪽)



일제 강점기에 경성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남대문을 거쳐 조선신궁이 있는 남산부터 올라 경성의 풍경을 조망했다. 식민지 조선은, 새로운 ‘종교’ 개념을 만들어낸 서구인들과 그것을 식민지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온 일본인들과 그 전파 대상인 한국인들이 어울려 만들어낸 종교와 유사종교와 민족주의가 서로 얹혀 있는 복합적인 시공간이었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동화되고, 어떤 사람은 강고하게 저항하고, 또 다른 사람은 동화가 바로 저항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가운데, 식민지민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기독교, 유교, 천도교, 증산교, 보천교 그리고 민족주의 등 모두가 정치적 태도를 버리지 않

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도 하고, 거꾸로 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이 시기에 종교 개념이 어떻게 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식민지민들의 기억 속에 내면화되어 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장에서 펼쳐진 근대 경험을 총체적으로 대상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서구적 ‘종교’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종교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작년에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 《식민지 조선과 종교—트랜스내셔널 제국사 서술을 위하여》의 결과물이기도 한 이 책은, 앞서 《植民地朝鮮と宗教》(磯前順一·尹海東 編著, 三元社)라는 제목으로 일본어판이 출판되기도 했다.



제1부 ‘종교 개념과 제국사’에서는 이 책의 문제의식의 중심축이 되는 종교 개념론의 과제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의 이론적 골자를 이루는 김태훈의 글 《1910년 전후 ‘종교’ 개념의 행방》에서는 식민지와 내지를 아우르는 제국의 역사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서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장석만의 글 《일제시대 종교 개념의 편성》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세속=정치/종교=내면’이라는 서양의 프로테스탄티즘적 정교분리가 시행되었다는 점과 현실에서는 그 이념과 상반되는 종교의 정치화 현상이 강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2부 ‘일상생활에서의 종교 포교’에서는 식민지 조선으로의 종교 개념의 유입이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민중의 일상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가를 고찰한다. 배귀득의 글 《1910년대 최증진의 자유교회와 그 주변》에서는 민중의 삶에 대한 강인함이 일본과 서양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의 의례와 교리를 변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더불어 조선총독부의 종교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한다. 제점숙의 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불교의 사회사업을 통해 본 ‘식민지 공공성’》에서는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에 의한 사회사업을 통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억압과 저항 혹은 갈등과 협력이라는 복잡한 관계가 교차했음을 논 의한다.

제3부 ‘국가신도와 유사종교론’에서는 현재 일본의 국가신도 연구가 암묵적인 전제로 삼는 일국사적인 틀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 대한 신사정책을 ‘제국사로서의 국가신도론’으로 포착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가쓰라지마 노부히로의 논문 《종교 개념과 국가신도론》에서는 식민지 조선에 ‘유사종교’라는 개념이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 사이의 회색지대로 설정되었음을 제시한다. 아오노 마사야키의 글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과 유사종교》에서는 이 유사종교 개념이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서 성립하여 1920년대 이후 일본으로 역수입되었다는 주목할 만한 해석이 제시된다.

제4부 ‘국가신도와 고유종교론’에서는 국가신도 교설을 둘러싸고 제국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전개된 해석 투쟁을 분석한다. 이소마에 준이치의 《식민지 조선과 종교 개념에 관한 담론 편성》에서는 당시에 신도를 일선동조론에 호응하는 식민지 통치 이데올로기의 일환이자 동북아시아로 확장되는 보편종교로 이해하는 입장이 일본과 조선 모두에서 일정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심희찬의 글 《‘방법’으로서의 최남선》에서는 이런 잡종적인 모호함을 가진 신도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민지민의 횡령 행위에 의해 재해석되었으며, 나아가 오늘날에는 친일 행위로 단죄되는 일본 문화에 대한 동화 행위도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보면 암묵적인 저항 행위로 재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제5부 ‘조선민속학과 고유신앙’에서는, 서양의 프로테스탄티즘 종교 개념이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유사종교’, ‘신도’, ‘고유신앙’ 등의 개념도 종교 개념으로 그대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념과의 관계성에 의해 규정되면서 성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남근우의 글 《일본인의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에서는 ‘조선민속학’에 종사하는 일본인에게 ‘유학=우월한 남성/무속=열등한 여성’이라는 이항대립적인 구도가 존재했으며, 이 젠더적인 표상에 근거하여 조선의 기층문화가 정체되어 있기에 문명화라는 이름 아래 식민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음을 문제 삼는다. 김성례의 글 《일제시대 무속 담론의 형성과 근대적 재현》에서는 ‘무속’이 그때그때의 식민지 상황에 따라 ‘민족종교’, ‘민족문화’, ‘민속문화’, ‘민중문화’, ‘원시심성’ 등의 각기 다른 함의를 가진 범주로 분절되었음을 기술한다.





잊혀진 근대 다시 읽는 해방 전사

(이덕일 著, 역사의 아침 刊, 384쪽)



가장 치열하게 욕망하고 저항했던 시기, 해방 전前 근대를 읽는다!

근래 ‘역사전쟁’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역사 왜곡에 대한 국내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에서는 편향된 관점으로 쓰인 교과서 채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과거 군국주의 역사를 옹호하는 우경화 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서적이 꾸준히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 논란의 계보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일제하 식민시대를 살펴보면 최근 두드러진 역사전쟁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이다. 2012년 4월~2013년 3월까지 《중앙선데이》에 연재된 〈이덕일의 사사사事思史: 근대를 말하다〉칼럼을 모은 이 책은 해방 전, 가장 치열하게 독립을 욕망하고 일제에 저항했던 한 시대의 기록이자 재현이다. 저자는 사회주의, 아나키즘 운동, 일제의 만주 침략, 부호의 등장, 일제의 패망 등 다섯 가지 프레임을 통해 해방 전 근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신문 기사와 증언록, 사진 등 사료 중심의 객관적인 서술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잊히고 묻히고 지워진 해방 전 근대의 풍경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읽는 새로운 근대 패러다임을 제시한 교양서!

한국 근대사는 1945년 해방 이후 냉전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마저 이념적 취사선택에 따라 서술되어야만 했다. 즉,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었던 삼

부三府 무장투쟁론이 아닌 외교독립론 위주로 논의되었으므로, 사회주의나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사는 더욱 역사 속에 잊히고, 묻히고, 지워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현재 일본의 우경화 바람은 1930~40년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갔던 군국주의 체제를 청산하지 못한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했던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학살의 전말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대사 중에서도 1918~1945년까지의 역사는 주요 테마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자, 우리에게 가장 낯선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운동사는 시대를 휩쓴 이념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민족주의 독립운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일제 군부와 파시스트가 이웃 국가에 저지른 만행과 학살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저자는 이런 점에 천착해 그동안 근대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선정하고,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역사적 과정을 서술하면서 새로운 근대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사회주의 운동부터 일제 패망까지, 다섯 가지 프레임으로 보는 근대사!

1920~30년대 사회주의 사회운동은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과 코민테른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민족해방운동이었다. 만주 한인, 일본 유학생, 진보적 사상의 청년들이 주축이 된 이 운동은, 사회주의 연대와 혁명을 통해 일제의 탄압을 벗어나려 했던 선구적인 움직임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직접 행동을 통한 혁명도 불사했던 아나키즘 운동은 일제뿐 아니라 좌파 전체주의까지 부정했다. 일제 수장들을 저격하고 중일 합자은행을 터는 등 아나키스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배후에는 정국을 타파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강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부터 일본 정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군부와 민간 파시스트는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전쟁기계가 되어 내부 쿠데타뿐 아니라 만주까지 강제 점령했다. 만주에 관동군을 파견하고 위성국인 만주국까지 세워 재만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와해시킨 침략 행위는 대부분 거짓 계략과 음모로 계획되었다. 서구 열강의 눈을 끌기 위한 자작극도 서슴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장작림 폭살사건, 상해사변 등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그들의 정신세계와 행태를 분석해볼 수 있다.

앞서 다루고 있는 사회주의, 아나키즘 운동사만큼 부동산, 주식투기, 금광 등으로 일확천금의 꿈을 이룬 부호들의 이야기 또한 한 시대를 온전히 복원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다. 식민시대라고해서 독립운동가의 삶만 중요할 수는 없다. 이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호들의 삶을 통해 당시 사람들도 돈과 명예를 추구했으며, 욕망을 좇는 본성은 현대인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만주 침략 이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거듭된 일제의 확전은 결국 패망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연합국의 두 주축인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면서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라는 새로운 시련을 맞이했다. 저자의 말처럼 “역사는 해방과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지금은 제대로 된 역사 비판을 위해 근대를 다시 읽어야 할 때!

역사학의 비판은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토대 위에서 사회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는 학문권력을 장악한 세력에 의한 팩트(fact) 조작, 역사를 조각조각 나누어 파편화·분절화된 해석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반성에 기초한 제대로 된 역사학이 절실하다. 그전에 먼저 식민시대의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하며, 제국주의 본국인 일본의 역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격동의 시대에 온몸으로 뛰어든 인물들은 대하소설의 소재로 채택되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들 삶의 총합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도달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그 의미는 이제 퇴색되거나 잊혔는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반성의 역사 위에 미래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면, 지금의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인 근대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투 사십년

(이극로 著/조준희 譯, 아라 刊, 339쪽)



- 지구를 한 바퀴 돈 한글운동가 이극로 박사의 파란만장한 40년 인생 역경
- 독립군이 되기 위해 서간도로 떠났다가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한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된 일화

이극로는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서간도 동창학교 및 백산학교 교사로 활약하였고, 상하이와 독일, 영국에서 유학을 마친 뒤 미국을 시찰하고서 귀국하여 한글운동가로서 조선어학회를 이끌며 조선말큰사전 편찬 등 한국근현대사에 적지 않은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극로가 1947년에 남긴 『고투사십년』은 자서전과 자작시, 그리고 부록으로 제자의 열전 두 편을 포함하고 있다. 자서전은 가족과 고향 이야기, 서간도 교사 시절, 중국 상해와 독일, 그리고 영국 유학기, 미국 시찰기, 길돈

사진, 조선어학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역자는 지난 7년 간 『고투사십년』에 기록된 이극로의 유럽(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 행적을 일일이 추적하였고, 특히 독일 베를린대학(현 훔볼트대학), 독일국립도서관, 프로이센 문화예술문서보관소,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 그가 남긴 자취와 관련 자료를 다수 발굴하였다.

그간 『고투사십년』을 복간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역사학자에 의해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답사와 관련 사진, 상세한 주석을 달아 현대적으로 복간된 『고투 사십년』은 그 출간의 의의가 크다. 금지곡이 되었던 그의 「한글노래」 악보도 수록함으로써, 생애의 말년을 북에서 보낸 이극로 박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남북 이념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리라 본다.

제82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



지난 1월 8일(수) 오전 11시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2주년 이봉창 의사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주최 :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 후원 : 국가보훈처, 광복회)

1901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봉창 의사는 1931년 1월 중국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백범 김구 선생이 결성한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뒤 이듬해 1월 8일 도쿄 경시청 정문 앞에서 히로히토(裕仁)

일왕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해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과 가능성을 안겨줌으로써 당시 침체일로에 있던 상하이 임시정부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32세의 나이로 순국했으며, 고인의 유해는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1946년 6월 30일 국내로 봉환돼 효창공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기 추모식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기 추모식’ 행사가 거행되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는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년)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격동의 1950년대 민족과 국가를 위해 법률가이자 독립운동가, 정치인으로서 청렴하고 강직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가인(街人)이라는 그의 아호는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고 머무를 곳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직접 붙인 것이다.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 그는 직접 충을 들고 의병에 가담해 항일독립운동의 전선에 뛰어 들었고, 부산지법 밀양지청에 판사로 임명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20년 변호사로 나선 뒤에도 김상옥 사건, 의열단 사건, 6·10 만세 사건, 안창호 선생 사건 등 100여건이 넘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재판의 변론을 맡았다.

광복 후에도 사법부장을 맡아 초기 사법부를 구성하고 기본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초대 대법원장을 맡아 민법·형법·형사소송법 등 기본 법률 초안의 열개를 짰다.

1962년과 1963년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건국공로훈장 독립장 등을 받았고 1964년 별세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김상옥 의사의 일제하 서울시가전 승리 91주년 기념식



지난 1월 22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열단원으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경찰과 교전 중 순국한 한지 김상옥 의사의 ‘일제하 서울시가전 승리 91주년’ 기념식이 김상옥 의사 출신 학교인 효제초등학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사)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운동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효제초

등학교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옥 기록영화 봉정·상영, 정진태 기념사업회장의 개식사,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의 기념사, 성악가 김동규의 김상옥 의사의 노래 찬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890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상옥은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윤익중, 신화수, 정설교 등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조직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고 기관지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해 국민들의 독립정신을 고취했다.

김상옥은 1920년 봄 만주에서 들어온 군정서원(軍政署員) 김동순과 만나 암살단을 조직해 일제 주요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는 일본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1920년 10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김구, 이시영, 조소앙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2년 김상옥은 폭탄,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고 안흥한, 오복영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해 거사의 기회를 노렸고, 1923년 1월 12일 밤 일제식민통치의 근간이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1월 22일 일본 경찰과 교전 끝에 순국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2.8 조선청년 독립선언 95주년 맞이 대학생 도쿄원정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산하의 ‘2.8 조선청년 독립선언 95주년 맞이 대학생 도쿄원정대’는 2월 8일 오후 1시 95년 전 2.8 독립선언이 터져 나온 조선 기독교청년회관 터, 지금의 재일 YMCA에서 2.8 독립선언 재현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애초 2.8 대학생 도쿄원정대는 건물 앞에서 평화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었지만 우익단체와 충돌 등이 우려돼 지하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독립선언 만세시위를 재현했다.

하루 전인 2월 7일에는 발대식을 갖고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낭독했다.



공주교대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4박 5일간 독립정신 답사단의 정기적인 활동과 별개로 공주교육대학교가 주최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형태의 답사를 새롭게 진행하였다.

‘중국 내 임시정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라는 주제로 총 34명(공주교대 학생 28명, 답사단장(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임직원 4명)이 임시정부 이동 경로에 따라 상해-진강-남경-항주-가흥-중경을 답사하였다.

재북 애국지사 후손 성묘 행사 2차 실무진 회의(심양 방문)



2006년도에 실시된 제1차 재북 애국지사 후손 성묘 행사에 이어 제2차 재북 애국지사 후손성묘 행사 추진을 위해 2013년 9월 15일~17일 중국 심양에서 관련 실무진 회의를 하였다.

작년에 이어 제2차 재북 애국지사 후손 성묘 행사 추진을 위한 실무진 회의가 지난 2월 22일~2월 24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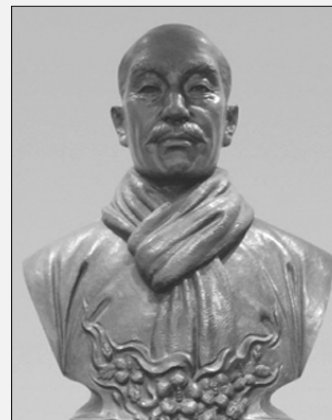
향후 남북한 양측의 승인 후, 매년 정례적으로 방북 성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당 이회영선생 흉상제막식

2월 24일 서울 명동 YWCA회관 정문에서 우당 이회영 선생 흉상 제막식이 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와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열렸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전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선생은 또한 해방 공간에서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은 일체의 자리를 사양하고, 동료와 후배들을 내세우는 겸양지덕을 갖춘 덕망가였다. 이는 곧 우리 세대의 시대정신의 표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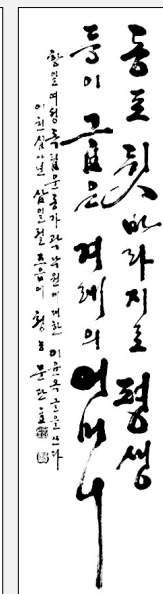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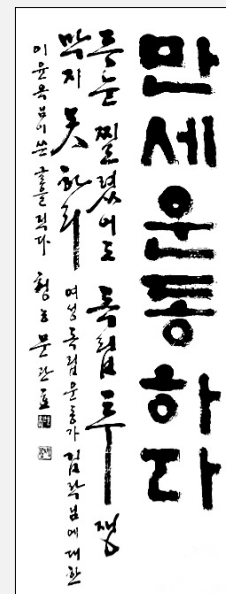
2014년 독립정신 산악회 첫 산행 일정안내

2014년도 독립정신 산악회(회장 이호헌)는 인왕산 시산제를 시작으로 첫 산행을 시작한다. 올해 산행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계속되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안내는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를 통해 공지된다.

- 산행일정 : 2014년 3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 산 행 지 : 인왕산
- 교 통 편 : 지하철-경복궁역(3호선) 1번 출구 하차

버 스 - (지선)7025, (간선)171, 601, 606, 706, 708, (광역)9703, 9706,
(마을버스)종 로 05 탑승 → 사직공원 하차

제95주년 3.1절 기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33인 시서전



4차례에 걸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시화전에 이어 처음으로 제95주년 3.1절 기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33인 시서전(詩書展)이 개최된다.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시는 이운옥 시인이, 붓글씨는 지난 해 제35회 원곡서예문화상을 받은 청농 문관호 서예가가 뜨거운 가슴으로 담아내며,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전시되며, 2월 27일에 개막식이 열린다.

- * 전시일정 : 2월 26일(수)~3월 4일(화)
- * 개 막 식 : 2월 27일(목) 오후 6시
- * 전시장소 : 갤러리 일호(국악로)
- * 주 최 : 한국문화사랑협회
- * 후 원 : 종로구청
- * 문의전화 : 02)6014-6677

제10기 독립정신 답사단 모집 공고



본회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해온 독립정신 답사단이 올 해로 10번째 답사를 맞이했다. 제 10기 독립정신 답사단은 중국 동북 지역 일대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7월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6박 7일 동안 지난 1월 하얼빈에서 개관한 안

중근기념관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용정일대와 봉오동 전적지, 이룡양행터, 여순 일야감옥 및 백두산 등을 답사한다.

신청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국내외 대학(원)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답사 코스 : 하얼빈-산시-해림-동경성-도문-연길-용정-화룡-백두산-삼원포-단동-대련-여순

* 답사 일정 : 7월 17일(목)~7월 23일(수), 6박 7일 * 신청 기간 : 4월 5일(토)~5월 20일(화)

*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www.kopogo.com) * 문의 : 본회 사무처 02)3210-0411

해외지부 최초 '광복회 호주지회' 승인

주시드니총영사관은 1월 21일 오전 11시 광복회로 부터 해외 활동 조직 가운데 최초로 재호주광복회(지회장 황명하)를 올 1월1일자로 '광복회 호주지회'로 승인 받음에 따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 호주지회' 승인서 및 신임 지회장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취진 총영사는 황명하 지회장에게 호주지회 승인서 및 지회장 임명장을 전수한 후 축사를 통해 재호주광복회가 지난 2009년 설립 후 순국선열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호주 교민사회 내 민족정기 선양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온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광복회 호주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 지난 73호(1,2월호) 회보에 기재된 <4기 임원명단> 오류 정정합니다.

이사명단 중 노웅래님, 유기홍님, 심재권님의 직함을 '前국회의원' → '現국회의원'으로 정정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4년 1월, 2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창복	20,000	2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익란	30,000	30,000	이창윤	1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 철	10,000	10,000
권상윤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노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반병률	10,000	10,000	이학호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영철(해진스님)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김경애	10,000	10,000	배해원	30,000	3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해준	20,000	20,000
김광재	5,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동현	1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명철		10,000	서영훈	30,000	3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삼웅	10,000	1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임진택	5,000	5,000
김성배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임형진	10,000	10,000
김선근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영한	10,000	10,000	장팔순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소중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숙정	50,000	50,000	엄기남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엄승훈	10,000	10,000	정재경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오성근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김용덕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오은주	20,000	2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원규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오학래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위현	50,000	50,000	우상호	30,000	3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윤수	30,000	30,000	원영애	30,000		조영빈	5,000	5,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기수	10,000	10,000	조용준	30,000	
김재홍	10,000	10,000	유상수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유은숙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종규	10,000	10,000	유원목	1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유종하	10,000	10,000	조회환	10,000	10,000
김종성	10,000	20,000	윤경자	20,000	2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종배	20,000	20,000	윤영소	1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종숙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윤영	10,000	1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낙현	20,000	20,000
김진영	10,000	10,000	이건웅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규중	30,000	3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상훈	10,000	10,000	한의석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성배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영국	10,000		홍순권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영숙	10,000	10,000	홍용희	10,000	10,000
노영택	20,000	20,000	이영후	30,000	30,000	황인순	20,000	20,000
문재선		10,000	이우재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민향선	80,000	10,000	이원희	100,000	100,000			
박남근		2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인석	10,000	1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일선	30,000	2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양수	10,000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용규		10,000	이종락	30,000	3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종찬	100,000	100,000			

2014년 1월, 2월 특별회비

회원명	1월	2월
(주)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송만섭	100,000	
곽수중	5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의여성사학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여성독립운동가 ⑤



간호사들의 독립운동과 서대문형무소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의로운 삶을 살다 간 간호사들은 현재까지 30여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¹⁾ 이들은 독립만세운동, 군자금 모집, 적십자 활동, 사회운동(노동·여성·농촌운동), 첩보활동, 비밀연락, 독립군 규합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이 가운데 정종명, 노순경, 김순호, 함귀래 4명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 정종명 선생

정종명은 17세에 결혼하였으나 2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 양성소'에 들어갔다. 그녀는 1919년 약제실 직원을 가장해 근무 중이던 독립운동가 이갑성으로부터 3·1독립만세운동 관련 서류를 몰래 받아 전달하려다 들켜 문초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을 그만두고 산파로 일하게 된 그녀는 후일 근우회 창립을 주도하고 신간회 중앙 집행위원에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노순경은 대한민국의여성사학회 국무총리와 참모총장을 지낸 노백린(盧伯麟, 1875. 1. 10~1926. 1. 22) 장군의 차녀로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1919년 12월 2일 서울 훈정동 대묘(大廟)앞에서 2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일제 총독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 시위에는 같은 병원에 근무한 김순호도 참가하여 함께 피체되었다. 이들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을 받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수감기간 동안에는 유관순을 비롯하여 심명철, 임명애, 신관빈, 어윤희, 권애라, 김향화, 이신애, 박인덕 등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여러 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옥중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양성소

함귀래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강릉에서 강덕선, 권오훈 그리고 강릉농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강릉독서회사건'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후 1934년에 출소하였다.²⁾

현대사회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자격을 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제강점기 간호사는 피고름 묻은 붕대를 매일 빨아야 하는 등 힘들고 천하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여성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신여성으로서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것은 존경스러움을 넘어 가히 존엄하다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인 희생, 봉사, 헌신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갖는 사명감 이외에도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정신과 활동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1) 김려화,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 함귀래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활동상을 알 수 없었으나 그녀의 동생 함홍래(2012년 작)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여 그녀의 독립운동에 대해 구술함으로써 소략하게나마 알려지게 되었다.

100年 편지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3)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5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00년 편지를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 연락주세요.

www.korea100.kr

보내주실 곳 : 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minkook100@naver.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